

野 “노동자 생명 최우선” 與 “영세업자 눈물 외면”

‘중처법 유예’ 협상 또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정부·여당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2년 유예 협상안을 거부했다. 이로써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중처법은 현행 법안대로 계속 적용된다. ▶관련기사6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1시간 반가량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명 정도 의원들이 찬반 토론에 참여했고, 의견이 갈렸다”면서도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생명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법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민주당이 법안 처리의 핵심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2년 후 개정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산업안전보건청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단속이나 조사 업무를 조금 덜어내고, 예방이나 지원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안을 제시했다”면서 “산안청을 당초 문제인 정부에서 하려다가 못한 이유가 현장에서 규제 기관이 늘어나서 오히려 중처법보다 더 어려운 현장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끝내 민주당이 협상안 수용을 거부하자 국민의힘은 강력히 반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우리 당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걸어찼다”며 “최종

당정, 산안청 등 절충안 제시 불구 민주당, 의총서 현행 유지 결론
대통령실 “대단히 유감스러워”

29일 본회의서 추가 협상 여지

조건을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800만 근로자의 중소기업도, 영세사업자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을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꼬아붙였다.

대통령실은 “유감”이라는 짧은 논평을 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처법 합의가 불발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도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했다.

여야가 2월 29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만큼 추가 협상 가능성은 있다. 윤영덕 대변인은 “이후 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의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하지만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은 (민주당과) 만날 분위기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월 본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이태원 참사 특별법 표결이 있을 수 있어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폴란드 무기 수출을 위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개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 당장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둘러싼 협상은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안건으로 지정되지 못했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정영민 기자 oin@



역대 가장 뜨거운 ‘사랑의 온도탑’

사랑의 열매 연말연시 희망나눔캠페인(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31일) 모금액이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두 달간 진행된 나눔캠페인 모금액이 목표액(4349억 원)의 111.2%인 4835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발표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이 111.2도를 나타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ik@

지역 필수 의사 계약 의대생, 교육·주거 패키지 지원

尹,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정부가 지역 필수 의사로 계약한 의과대 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 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슝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관련기사3면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10년 뒤 의사 인력이 1만 5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울대 추계를 고려해 내년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한다. 구체적인 증원 일정·규모는 설 연휴 전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기초·임상교수 확충, 실습여건 개선 등 교육을 내실화하고, 인턴제는 필

내년부터 의대 신입생 입학정원 늘려 지역 인재전형 의무 선발비율 확대

급여·비급여 항목 ‘혼합진료’ 금지 일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검토

수진료과목과 일차의료 수련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전공의 위임업무를 줄이고 전문의 고용을 늘리는 병원에는 정책 가산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도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

지역의료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 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신설해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원을 지원하고, 동일 시도 내 의뢰·회송에 대한 수가를 개선한다. 특히 지역인재전형 의무선발비율(40%)을 대폭 확대하고, 졸업 후 지역필수의료기

관 근무를 계약한 의대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 등 정주(지방자치단체)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역수가제를 도입·확대하고, 필수의료 인력·인프라 확충과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필수의료 보상도 강화한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고, 중증·필수인프라를 유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적자를 사후 보전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의사 자원의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 슝림을 완화하기 위해선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에 대해 급여·비급여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 혼합진료의 대표적 사례는 도수치료다. 혼합진료는 국민건강보험, 실손보험이 함께 적용돼 본인 부담이 낮다.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정책연구,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시술 자격 체계도 개선한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사이클 종단을 공식 선언했다. 시장이 기대했던 3월 기준금리 인하에 관해선 가능성이 작다며 선을 그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올해 처음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5.25~5.50%로 동결했다.

▶관련기사4면

지난해 9월 첫 동결 이후 4회 연속 동결이다. 한국과의 금리 차는 최대 2%포인트(p)로 유지됐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지표를 보면 경제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일자리 증가는 작년 초부

“인플레이션 완화 확신 부족”... ‘3월 금리인하’ 선 그은 파월

터 둔화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플레이션은 1년간 완화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롬 파월(사진) 연준 의장은 이후 기

美연준, 4연속 기준금리 동결

성명서 ‘추가정책 강화’ 문구 삭제 사실상 ‘긴축 사이클’ 종단 선언



사회회에서 3월 금리인하설을 묻는 말에 “이날 회의를 토대로 볼 때 위원회가 3월 회의 때까지 3월을 그렇게 할(인하) 시기로 확정할 만큼의 신뢰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하락 추세에 관해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며 “더 나은 데이터보다 더 나은 데이터의 연속성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상이거나 거의 정상 수준에 다다른 노동시장에 예상치 못한 둔화가 발생한다면 금리를 더 빨리 인하하는 것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결과적으로 이번 회의는 연준이 긴축을 중단하기로 한 것을 명확히 했다는 것에 만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성명에서 그간 긴축 의지를 표명하는 데 쓰였던 ‘어떤 형태든 추가 정책 강화(any additional policy firming)’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파월 의장 역시 “우리 이번 긴축 사이클 동안 정책 금리가 최고조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경제가 예상대로 발전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부터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잠실~여의도 30분... '한강 리버버스' 10월 첫 기적 올린다

서울 대중교통 '수상'으로 확대
마곡·옥수 등 7개 선착장 운영
요금 3000원·기후동행카드 연동

올해 10월부터 잠실에서 여의도를 단 30분 만에 갈 수 있는 '한강 리버버스'가 운항을 시작한다. 서울시는 마곡, 여의도, 잠실 등 총 7곳의 선착장을 운영해 서울의 주요 지점을 연결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로 한강 리버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선착장 위치, 운항노선, 운항시간표, 이용요금 등을 담은 '한강 리버버스'의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서울의 새로운 대중교통 수단이자 친환경 수상 대중교통 시대를 열어갈 한강 리버버스가 올해 10월부터 총 8대로 운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강 리버버스는 마곡-잠실 사이 총 7개 선착장을 출퇴근 시간 15분 간격, 평일 1일 68회 상·하행 편도로 운항한다. 길이 35m·폭 9.5m로 한 번에 탑승 가능한 인원은 199명이며 평균속력은 17노트(31.5km/h), 최대속력은 20노트(37km/h)다.

한강 리버버스 편도요금은 3000원으로 책정됐으며, 기후동행카드(6만8000원권)로는 지하철, 버스, 파릉이, 리버버스를 무제한으로 탑승할 수 있다. 파릉이를 포함하지 않을 시에는 6만5000원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선착장은 △마곡 △망원 △여의도 △잠실 △옥수 △독섬 △잠실 7곳에 조성된다. 시는 주거·업무·상업·관광 등 지역별 특성과 수요, 지하철 등 대중교통 연계, 나들목 및 주차장 접근성, 수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착장 위치를 최종 선정했다.

오 시장은 "런던 출장 중 템즈강의 우버



보트를 타보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운행하고 무엇보다 소음, 진동이 없어서 쾌적한 대중교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느꼈다"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민들께도 (이 같은 대중교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강 리버버스는 하루에 5200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버버스는 대중교통과 관광 기능이 함께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강 리버버스는 앞으로 7개 선착장을 상행(마곡→잠실)과 하행(잠실→마곡)으로 구분해 편도로 운항한다. 운항 시간은 평일 오전 6시 30분~오후 10시 30분(68회 운항),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 30분~오후 10시 30분(48회 운항)이다.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6시 30분~9시와 오후 6시~8시 30분에는 15분 간격, 그 외 시간대와 주말·공휴일은 30분 간격

오세훈 "英 우버보트에서 영감
서울시민 친환경 교통 누릴 것"
해외 관광객 특화 요금제 준비

으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운항한다.

마곡·여의도·잠실 선착장 3곳만 정차하는 '급행노선'도 출퇴근 시간대에 16회 운항한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일반노선 이용 시에 1시간 15분이 소요된다면, 급행노선은 21분이 단축된 54분 만에 이동이 가능해 바쁜 출퇴근 시간대 효율적인 이동을 돕는다.

한강 리버버스 이용요금은 광역버스 기본요금과 동일한 3000원으로 책정했다. 기후동행카드로도 이용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정기이용 승객을 위한 월간·연간 등 기간제 이용권, 서울을 찾은 내·외국인 관광

객을 위한 1·3·7일권 등 한강 리버버스만의 특화된 전용 요금제도 출시된다. 또한 경기·인천과 논의해 수도권 환승할인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하철역에서 선착장까지 도보 5분 이내 접근 가능한 여의도·옥수·독섬 3개 선착장에 대해선 보행로 정비와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접근로 주변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지하철역과의 연계가 다소 부족한 마곡, 망원, 잠원, 잠실 4개 선착장은 나들목 등 주변 도로 여건을 고려해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조정할 계획이다.

한강 리버버스를 타는 승객은 탑승객 전용 좌석제로 앉아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고, 모든 좌석에는 개인 테이블이 있어 간단한 업무와 선내 카페테리아에서 구입한 식음료도 즐길 수 있다. 선박 내에는 자전거 거치대 22개도 설치해 타 대중

7곳 선착장 도보 5분 접근 목표
출퇴근 시간대 15분 간격 운항
3곳 정차 '급행노선' 21분 절약

교통 이용 시 어려웠던 자전거 휴대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올해 10월 정식 운항을 목표로 선착장 조성, 접근성 개선, 선박 건조 등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논의됐던 김포~서울 노선은 김포시와 협력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시는 2025년 이후 한강 주요 지점인 상암, 노들섬, 반포, 서울숲을 비롯해 김포 아라한강갑문, 당산 등으로도 선착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선박 수도 2026년 10대, 2027년 12대, 2029년 14대로 단계적으로 늘린다.

연간 한강 리버버스 탑승객은 2025년 80만 명에서 2030년 25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특히 환경적 측면에서 승용차 운행이 리버버스로 전환돼 연간 약 9000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시는 한강 리버버스가 새롭게 도입되는 대규모 수상 대중교통수단인 만큼, 공공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경영과 회계, ㈜이크루즈는 선박 운항을 각각 담당하도록 했다.

오 시장은 "한강 리버버스가 도입되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출·퇴근길을 경험하며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강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한강 리버버스'를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활용해 3000만 관광객 시대를 열고, 도시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채빈 기자 chaebi@

난방비 절약

지구를 살리는 에센스

당신의 에너지 센스!

한달 가스사용량 38%, 가스요금 38% 절감하는 센스!

실내 적정온도 20℃
(난방기 1℃↓)

5.54 m³/월

샤워시간 5분 줄이기

6.96 m³/월

뽀뽀이, 문풍지, 커튼
으로 틈새 열손실↓

5.54 m³/월

노후배관 오염물질
제거로 난방효율↑

5 m³/월

안 쓰는 방 난방온수
분배기 밸브 잠그기

4.41 m³/월

노후보일러를
고효율 보일러로 교체

10.4 m³/월

참여대상
· 주택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

신청기간 및 방법
· '23년 12월 ~ '24년 3월

구글, 네이버에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검색하여 신청

절감액
· 절감량에 따라 50~200원/m³

동절기(12~3월) 가구당
평균 400m³ 사용 기준(가스요금 364,500원)

절감률 | 절감액 | 캐시백 | 절감액 | 예상요금

5% (20m³) | 18,200원 | 1,000원 | 19,200원 | 345,300원

10% (40m³) | 36,400원 | 4,000원 | 40,400원 | 324,100원

20% (80m³) | 72,900원 | 16,000원 | 88,900원 | 275,600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KEN 한국에너지

KOMIPO 한국중부발전

KIP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KEA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새마을운동중앙회

에너지시민연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한국소비자정책위원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尹 “건보 재정 흐드는 비급여 손질… 필수의료 10조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의료 개혁을 추진할 골든타임”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1일 경기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8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오직 국민과 미래를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선언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 토론회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강화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긴 ‘4대 정책 패키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는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며 “대한민국 의료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우리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이 걸린 필수의료강화책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해 필수의료에 10조 원 이상 투입하겠다”며 “의료 남용을 부추기고 시장을 교란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비급여와 실손보험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겠

지금 이 의료개혁 골든타임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국가 본질적 역할 저버리는 것”

필수의료에 건보 적립금 활용

과잉진료 낚는 실손보험 개혁

소아과·산부인과 등 수가 보완

소신 진료 지원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 늘리고

의료인 사법리스크 부담 완화

다”고 약속했다. 또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고령인구가 급증하고, 보건산업 수요도 크게 늘고 있다. 지역의료, 필수医료를 살리기 위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질의 의학 교육과 수련 환경을 마련해 의료인력 확충을 뒷받침하겠다”며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은 강화하되 의료인들의 사법 리스크 부담은 확실하게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인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지만 실제로 의사의 고의나 중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매우 적다”며 “제도를 전면 개편해 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피해자는 두텁게 보상받도록 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 관련 고소·고발이 있다고 해서 즉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은 정말 우리 환자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점을 법무 정책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의료 재건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으며 “지역의료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지역 정책수가,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숙고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대통령직속특위를 설치해서 하나하나 대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마친 뒤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역의료 지원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지역에서 필수医료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끔, 법적 리스크를 전문가답게 지게 해야 한다”며 “법적 리스크를 크게 부담하지 않고 소신껏 자신의 전문가 식견을 살려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정책수가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며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이런 필수의료 분야에서 시설을 만들고 의사·

간호사를 채용해 그런 시스템을 가동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써 정책수가로 보상하는 부분을 확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의사들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검사 시절 의료사고 수사 경험을 소개하며 신중한 수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에 의료사고 사건을 처리한 적 있다”면서 “그 사건 한 건을 처리하기 위해 한 달 동안 다른 일을 못하고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사건 처리”라며 “그런데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의사를 부르고 조사하고 압박하면 (의사들은) 다 병원을 떠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 개혁의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의료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릴 자신이 있다”며 “이렇게 큰 글로벌 시장을 상정해서 우리의 의료 개혁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반도체·中’ 돌아오니... 1월 수출 18% 늘었다

메모리 반도체 작년 대비 90% 급증 對中 수출 20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

대(對)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 1월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4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를 이어갔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 증가를 이끌었고 철강 등은 플러스로 전환하며 힘을 보탰다. 작년 저조한 수출 성적표를 기록했던 반도체와 중국이 반등을 시작한 만큼 전체 수출이 회복세로 접어드는 신호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1월 수출액은 546억9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18.0% 증가했다. 월간 수출은 작년 10월 플러스로 전환한 뒤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월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2년 5월(21.4%) 이후 20개월 만이다.

15대 주력 품목 중 13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증가 품목 수를 기준으로 2022년 5월(14개 품목) 이후 가장 많은 품목의 수출이 고르게 증가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수출은 3개월 연속 증가세다. 1월 반도체 수출은 93억7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6.2% 증가했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은 2017년 12월 이후 6년 만에 최고 수준

이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1월 수출은 52억7000만 달러로 증가율이 전체 반도체 평균보다 높은 90.5%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자 수요 둔화 우려 속에서도 자동차 수출은 62억 달러로 작년보다 24.8% 늘어나면서 19개월 연속으로 수출 증가 흐름이 계속됐다. 전체 자동차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전기차 수출도 15.8% 증가하면서 자동차 수출 호조세를 견인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무선통신(-14.2%)과 이차전지(-26.2%)만 수출이 감소했다. 1월 무선통신 수출 감소는 글로벌 스마트폰 수요 감소에 따른 부품 수출 부진과 작년 갤럭시 S23 등 신제품 출시에 따른 수출 호조의 기저효과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수출이 107억 달러로 작년보다 16.1% 증가했다. 이로써 대중 수출 증가율은 2022년 5월 이후 20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다. 반도체 대중 수출이 3개월 연속 증가한 상황에서 기계·디스플레이 등 상품의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서면서 전체 대중 수출이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다.

1월 수입액은 543억90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줄었다.

1월 전체 무역수지는 3억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월간 무역수지는 작년 6월부터 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당신은 항상 웃을 수 있게

겪어보면 다른 보험 현대해상

마음이 합니다
H 현대해상

〈최상목 경제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崔 “국내 파장 각별한 경계”…李 “최소 반년 긴축기조 유지”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주요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커져
자본시장 근본적 체질개선 추진
한은, ‘8연속 동결’ 가능성 무계
전문가 “하반기 금리인하 나설 듯”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4연속 기준금리 동결 결정과 관련해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관련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는 “연초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시장이 다소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가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고, 자금시장도 회사채 등 발행이 원활한 가운데 단기금리가 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복현 금감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향 안정화되는 등 대체로 양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대내외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한국은행은 취약부문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우리 증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온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

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세 가지 축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매력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한은 역시 당분간 인하에 나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준이 이날 ‘연내 완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만큼 미국은 이르면 2분기, 한국의 경우

이를 지켜본 뒤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여는데, 8연속 동결을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달 11일 열린 새해 첫 금통위 통방 회의 의사록을 보면, 현재 금통위원들도 대부분 연준과 마찬가지로 “물가가 2%에 안착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11일 동결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미국 연준의 물가 상승률 변화에 따른 금리 결정, 유가 안정

여부, 소비가 경기 예측대로 갈지, 무엇보다 물가 경로가 예상대로 갈지 봐야 한다”며 “적어도 6개월 이상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1월까지 수개월간 이어진 ‘추가 긴축’ 언급은 금통위 의사록에서 사라졌다.

전문가들도 한은의 금리 인하 시점을 하반기 이후로 보고 있다. 연준의 동향 등으로 미뤄 미국의 피벗(정책 전환)이 일러야 5월 또는 6월에나 가능하고, 한은은 연준의 인하를 확인한 뒤에야 금리를 낮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안재균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소비가 하반기로 갈수록 부진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이때쯤 서비스 중심으로 물가 상승률 하락도 뚜렷해지면서 한은의 정책 대응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미국 연준의 6월 인하를 전제로 한은의 7월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부동산 PF 문제로 올해 건설투자 둔화, 부동산시장 침체 위험이 커져 내수 경기가 지속적으로 억눌릴 것”이라며 “이는 수출경기 회복 효과를 상쇄하면서 한은의 올해 성장 전망에 하방 리스크가 점차 고조되고, 이에 대한 통화정책 대응 필요성도 2분기 이후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美 연준, 3월 인하설 일축에 주식·외환시장 ‘요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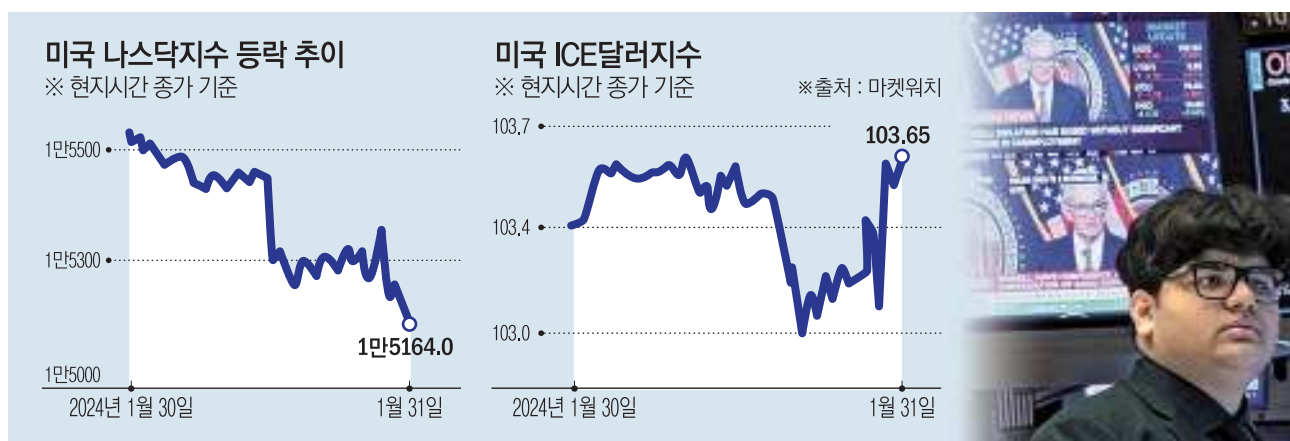
뉴욕증시 일제히 하락… 나스닥 2%대 약세
하락하던 ICE달러지수, 파월 발언 후 반등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기준금리 인하설을 사실상 일축하자 투자자들은 실망감에 휩싸였다. 주식은 내리고 미국 달러 가치는 오르는 등 시장이 요동쳤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투자전문매체마켓워치가 보도했다.

뉴욕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2%, S&P500지수는 1.61% 각각 하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2.23% 급락했다.

연준이 3월부터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3월은 어렵다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에 실망감을 표했다. 미국 경제가 연착륙을 향해 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길어지는 긴축이 경제에 타격을 주거나 차입 비용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되지 못했다.

달러 가격은 반등했다.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ICE달러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모니터에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장면이 나오고 있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마지막 날인 이날 오전만 해도 전날의 103.4에서 103.0으로 하락했지만,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103.65까지 다시 올랐다. 통상 연준이 금리를 낮추기 시작하면 통화방향이 늘어나 달러 가치를 희석하는데, 반대 상황에 부닥치자 달러 가치가 빠르게 회복된

것이다.

다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되레 4% 밑으로 하락했다. 파월 의장이 3월 인하설을 거절한 것보다 연내 인하를 분명하게 거론한 부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10년물과 2년물 금리 모두 0.13%포인트(p) 내려 각각 3.929%, 4.227%로 집계됐다.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미국 언론들은 “파월 의장이 투자자들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낙담한 부류와 관망 주장으로 나뉘었다.

반리온캐피털의 샤나 시셀 최고경영자(CEO)는 “경제 성장이 둔화하거나 경기침체 위험이 커지면 연준이 더 공격

적일 수 있겠지만, 3월 금리 인하는 커다란 경제적 혼란 없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념했다.

반면 프린스필자산운용의 시마 사투 자전략가는 “이날을 기점으로 다른 연준 위원들이 파월 의장과 반대되는 발언을 할 수 있다”며 “앞으로 몇 주 동안 이들의 연설을 듣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준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다가 자칫 경제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셀턴캐피털의 제프리 로젠크란츠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우리의 우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재확산을 지나치게 우려해 긴축을 얹는 일을 너무 오래 기다릴 것이라는 점이었다”며 “이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까지 오래 기다릴 것이고, 따라서 널리 퍼져 있는 골디락스 연착륙 전망 대신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대영 기자 kodae0@

이창용 “소비회복 더디지만, 수출개선으로 성장세 확대”

경총 한국최고경영자포럼 기조연설
글로벌 교역 부진 터널 점차 벗어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소비회복세는 더디지만, 수출개선으로 성장세를 확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는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 주최로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한국최고경영자포럼의 기조연

설자로 나서 “올해 세계 경제는 고금리 영향이 지속되며 성장 흐름이 둔화할 것이나, 그동안 부진했던 상품교역 중심으로 세계교역은 점차 회복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내수는 아직 작년에 비해서 크게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출의 주요 품목인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을 제외하고 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체감으로는 한 1.7% 정도 된다”며 “기업이나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경기가 더 빠르게 회복된다고 느끼기는 어려

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올해 물가와 경기 상황, 통화정책에 대한 전망을 밝혔다. 그는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이 크므로 선부는 금리 인하 시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 심리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며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물가, 금융안정 데이터 등을 확인하며 긴축기조는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미국 경제 상황을 ‘골디락스’라고 표현하며 주목했다. 그는 “미국

이 작년에 2.5% 성장을 했다. 올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몇 개월 전만 해도 미국 성장률을 1.5%로 잡았는데 1월에 2.1%로, 0.6%포인트(p) 올렸다”며 “미국과 같이 모든 정보가 많이 공개된 나라에서 3~4개월 만에 성장률을 0.6%p 올린다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물가도 빨리 떨어지고 있다. IMF는 미국 물가상승률을 2.2%로 0.6%p 낮추려고 한다고 하더라”며 “미국의 경우 누구는 골디락스라고 얘기를 하고, 성장은 높는데 인플레이션은 높았다가 빠르게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국제유가 흐름을 주시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의 올해 연간 국제유가 전망치는 배럴당 85달러(브렌트유 기준)다. 이 총재는 “중동 지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주요국들이 확전을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는 공감대가 있어서 생각보다는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예측하기 어렵지만, 한은은 올해 유가가 85달러 정도 선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럴당 85달러보다 내려가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좋은 뉴스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지희 기자 jhsseo@

헬스케어 뛰어든 카카오... ‘파스타’ 앱으로 혈당관리

당뇨환자 570만명, 치료비 3조
“현행 치료법 돈만 쓰고 효과 無”
음식 사진 찍으면 열량 등 분석
가입 없이 카카오 계정서 이용
“연내 日 진출, 이후엔 美·중등”

“당뇨는 잘못된 생활습관의 반복으로 생기는 병입니다. 혈당 측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하는 유일한 앱인 ‘파스타’는 당뇨 환자 개개인에게 맞춤형 관리를 제공할 것입니다.”(황희카카오헬스케어 대표)

카카오헬스케어(가인공지능(AI) 기반 모바일 혈당 관리 서비스 ‘파스타(PASTA)’를 1일 출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전개한다. 파스타는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2등급 인증(2등급 유헬스케어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 허가)을 받은 애플리케이션으로, 미국 텍스콤과 국내 아이센스의 연속혈당측정기(Continuous Glucose Monitoring·CGM) 센서와 연동해 생활 속 혈당 관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황희카카오헬스케어대표는 이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텍스콤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연동을 획득한 기업은 카카오헬스케어뿐”이라며 “우리가 가진 기술적·사업적 가치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파스타의 차별점을 설명했다.

대한당뇨병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당뇨병 환자는 570만 명, 당뇨 전 단계 환자는 1500만 명에 달한다. 당뇨 환자의 연간 진료비는 3조 원을 돌파했고, 국민건강보험이 지급하는 당뇨치



황희 카카오헬스케어 대표가 1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파스타’를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파스타’의 주요 메뉴와 기능.

료제 비용도 1조 원에 달한다.

황 대표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10년 동안 당화혈색소 수치는 0.1도 떨어지지 않았다. 현행 치료법은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없단 것”이라고 말했다.

파스타 앱은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본인의 ‘카카오 계정’을 활용해 쉽게 로그인할 수 있다. CGM 센서 연동을 완료하면 혈당 데이터가 블루투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앱에 자동 표출된다.

실시간 연동과 더불어 눈에 띄는 장점은 직관성이다. 이용자는 실시간 혈당 데이터와 간편한 기록을 통해 생활 습관과 혈당의 상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음식을 촬영하면 음식 종류, 영양소, 열량 등을 알려주는 ‘비전AI’ 기능으로 식사를 손쉽게 기록 가능하다. 식이뿐만 아니라 수면과 운동 등 혈당 반응과 관계있는 데이터를 모아 그래프로 보여주고 가이드도 제공해 스스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CGM 착용 기간 데이터를 분석해 혈당변동성, 혈당관리지표(GMI), 목표 범위 내 비율, 평균 혈당, 혈당 하이/라이트 등 각종 수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리포트를 제공한다. 가족·지인과 혈당 관리를 실시간 공유하는 기능 및 다른 환자와 소통하는 커뮤니티 기능도 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올해 4월까지 인슐린 집중 치료 당뇨병 환자를 위해 인슐린 펜과 호환되는 노보노디스크와 바이오톱

의 ‘말리아 스마트 캡’을 세계 최초로 SDK 방식을 통해 파스타 앱과 직접 연동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당뇨에 이어 고혈압과 다른 합병증 등으로 파스타의 의학적 영역을 넓히고, 당뇨 전 단계 관리나 비만 등 웰니스 영역도 확대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목전에 두고 있다. 올해 말까지 당뇨 인구 1100만 명을 보유한 일본 진출 준비를 완료하고, 이후에 미국과 중동 등으로 시장을 확장한다. 일본은 한국처럼 CGM 보급이 초기 단계로 앞으로 4~5년에 걸쳐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이다. 미국의 경우 구독료 모델을 실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혜은 기자 euna@

삼성전자, MSCI ESG평가 ‘AA 등급’ “지배구조 개선”... 국내 ICT업계 최고

전세계 상장사 8500곳 분석
한단계 상승... 인재양성 호평

삼성전자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이 발표한 ‘2023년 MSCI ESG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AA 등급은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최고 수준이다.

MSCI ESG 평가는 글로벌 3대 투자은행으로 꼽히는 모건스탠리의 자회사인 MSCI가 200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글로벌 ESG 평가다.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 현황을 평가해 7개 등급(AAA-AA-A-BBB-BB-B-CCC)으로 분류한다.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3년 연속 A 등급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사회, 지배구조 부문 평가 점수가 큰 폭으로 오르며 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다.

특히 글로벌 인재 양성, 자원 조달 정책, 기업 지배 구조 부문에서 점수가 개선됐다.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에게 더 많은 직무

전환 기회를 부여하고 국내·해외법인 간 상호 교환 근무 경험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FA(Free Agent)와 STEP(Samsung Talent Exchange Program) 제도를 도입했다.

또 모든 협력 회사를 대상으로 책임 광물 현황 조사와 점검을 하고 있으며, 분쟁 광물 보고서를 별도로 발간하는 등 광물 조달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의 해결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조직과 임원을 대상으로 경영성과를 평가할 때, 환경과 사회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항목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이사회 산하 지속가능경영위원회에서 주요 ESG 안건들을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MSCI는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는 광물 조달 과정에서 업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기업 지배 구조 관행도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안정적인 ESG 경영 체제 강화를 위해 친환경 관련 신기술 투자, 친환경 기술 적용 신제품 지속 확대, 공급망 내 인권 관리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웅 기자 pmw7001@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NH투자증권 연금

연금,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자

연말정산 세액공제 연금이 필수인 거 아시죠?
세액공제는 물론 연금수익률까지!
NH투자증권 연금으로 처음부터 제대로 관리받으세요.

퇴직연금

연금저축

IRP

[투자 유의사항]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연금계좌의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 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통예금에 준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통 예금 상품과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DB] 이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QV IRP에서는 퇴직금에 대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후납, 상세 수수료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ETF/리츠 매매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으나 보수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ETF/리츠별 상이 상세내용은 각 운용사 홈페이지 참조)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004호(2023.10.27~2024.10.26)

투자, 문화가 되다

NH투자증권

중국서 짐사는 외국인 투자자 6개월간 37兆 유출 새해에도 짝~

글로벌 펀드 '脫중국' 계속

지난해 시작한 글로벌 펀드들의 중국 시장 이탈이 새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중국 내 문제와 미·중 갈등과 같은 대외 문제가 더해지면서 중국을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1월 홍콩과 중국 본토증시와의 교차 거래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145억 위안을 순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매도는 지난해 8월 시작해 6개월 연속 계속됐다. 이 기간 누적된 순유출액은 2010억 위안(약 37조 원)에 달했다. 중국 상하이와 선전증시 시가총액 상위 300개 기업 주가를 종합한 CSI300지수는 1월에 만 6% 이상 하락했다.

펀드 자금 유출만이 문제는 아니다. 외국인직접투자(FDI)도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지난해 첫 9개월간 FDI는 160억 달러(약 21

1월에만 145억 위안 순매도

외국인직접투자도 눈에 띄게 줄어
부동산 침체·강력한 정책부재에
G2 준냉전·저성장 경제 등 원인
지방정부 재융자채권 발행 최대

조 원)에 그쳤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1년 기록한 연간 3440억 달러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치다.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을 떠난 데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를 비롯해 당국의 강력한 정책 부재, 파생상품 자본 유출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여기에 미국과의 준냉전 체제와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성장 전망 악화 등도 원인으로 꼽힌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2017년 40억 달러에 인수했던 백화점 체인 인터타임 매장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경기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인터타임은 오프라인 매장으로 발을 넓히려던 알리바바의 성장 전략 핵심이었지만, 지지부진한 성장세에



중국 상하이의 한 증권사에서 고객이 주가를 보고 있다.

상하이(중국)/로이터연합뉴스

결국 경영진이 손을 떼려는 것이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제이컵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급성화하던 경제에서 저성장 경제로 빠르게 전환한 점은 중국에 대한 투자가 급감한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넷웨스트마켓의 겔빈 치아 투자전략가는 “최근 중국 경제지표에 반등의 신호는

없다”며 “이미 매우 확고하게 자리 잡은 약세 전망을 바꾸기에는 서프라이즈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부채도 문제다. 중국 중앙정부는 부동산 위기로 불거진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방정부는 급증하는 부채에 허덕이고 있다. 이날 중국 재정부가 공개한 지

최근 6개월 누적 순유출액
2010억 위안 -1.0

외국인 투자자 중국 본토
주식 누적 유입액
(단위: 조위안)
※ 출처: 블룸버그

방채 발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의 총 차입액은 9조3394억 위안에 달했다. 특히 재융자채권 발행은 4조6803억 위안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빚을 내 빚을 갚기 바빴다는 의미다.

또 전날 중국 사회과학원 산하 싱크탱크인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은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287.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연말까지 명목 GDP 증가율이 5%에 도달하더라도 부채 비율은 30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안토니오 그라세포 박사는 “이번 주 홍콩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은 회사는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많은 단일 기업이고 중국 GDP의 20%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은 붕괴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고령화와 부동산 부채 위기, 투자자 신뢰 상실 등을 해결할 정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중국 경제는 회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고대영 기자 kodae0@

프로 '중처법 5인 이상~50인 미만 유예 불발' 영세사업 현장에선

“장사도 어려운데 안전책임까지... 죽을 맛”

‘중처법 적용대상 포함’ 소식에
5인 미만 맞추려 직원 내보내
고의 등 아닐 땐 처벌 아니지만
사업주들 “사고뎌 처벌” 불안감
구청·정부 안내·기준안도 없어

“갑나서 가게 운영하겠어요? 중대 재해처벌법(중처법)이 5명부터 적용된다고 사흘 전 직원 한 명을 내보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서 40여 년째 한우구이 식당을 운영 중인 옥영희(가명·69) 씨는 최근 자신의 가게도 중처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못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숨을 쉬었다.

1일 종로구 일대 식당가 업주 대부분은 중처법의 확대 적용, 시행 소식에 “과도한 규제”라고 입을 모았다. 몇몇 가게 업주는 중처법 시행 사실이나 적용 대상을 아예 알지 못하거나 인지하고 있더라도 세부 내용은 잘 모른다고 손사래를 쳤다. 정부가 지난 2년간 유예기간을 충분히 줬다고 했지만, 실상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다.

중처법은 2021년 1월 26일 제정돼 이듬해 1월 27일,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50인 미만 기업은 부칙 규정을 통해 2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에 따라 지난해 27일



1일 서울 종로구 한우구이집 사장인 “중처법 시행으로 인해 직원을 내보낸 뒤, 손이 모자랐다”며 직접 고기를 손질하고 있다.

부터 중처법 적용 대상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중처법은 노동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 등 중대재해를 당했을 때, 사고예방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를 피하려면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이행해야 한다.

상시 근로자를 5명 이상 고용한 영세 사업주에게도 중처법이 바로 적용

되는 탓에 소규모 식당이나 카페를 운영 중인 업주들의 불안감은 엄청나다. 옥 씨 역시 마찬가지다. 주방과 홀 인원까지 합해 5명을 고용한 터라, 본인도 중처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는 “혹시 모를 사고로 업주가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 사람을 더 쓰려고 해도 굳이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다”며 “차라리 좀 더 힘들더라도 내가 더 일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작 중처법을 꼼꼼히 뜯어보면 설령 사고가 난다고 해서 모든 업주들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의 의무 위반과 근로자의 사망 및 부상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가 명확한 경우만 처벌대상이다. 하지만 업주들은 명확하지 않은 기준과 현실이 괴리가 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8명의 직원을 거느린 주꾸미 가게 주인 주은정(가명·59) 씨는 “장사도 어려운데 이런 작은 식당에서 어떻게 안전체계를 갖추겠냐”며 “근로자 안전도 중요하지만 영세사업자들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법”이라고 꼬집었다. 고깃집 사장 김재우(가명·48) 씨도 “얼마 전 뉴스 보고 중처법 시행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따로 규정이나 정부에서 안내가 내려온 것도 없고 구체적인 기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딱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글·사진 문현호 기자 m2h@

‘HBM시장 주도권’ 놓고 올 ‘진검승부’ 예고

“더 치고 나간다” SK vs 삼성 “뛰어넘겠다”

삼성, 작년 4분기 판매 40% ↑
HBM3E 8단 상반기 양산체제로

SK, 점유율 53%로 1위 차지
“토털 AI 프로바이더 입지 확대”

올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 주도권을 두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진행한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를 통해 올해 차세대 HBM 양산과 개발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HBM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가 대폭 늘어나면서 지난해 4분기 D램 사업이 1년여 만에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부터 4세대 HBM(HBM3) 양산을 시작했으며, 4분기에는 주요 글로벌 그래픽처리장치(GPU) 기업 거래처를 확보했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전략마케팅실장(부사장)은 “HBM 판매량은 매분기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며 “지난해 4분기에는 판매량이 전 분기 대비 40% 이상, 전년 동기 대비 3.5배 규모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HBM3E의 사업화를 앞당기는 데 주력하고, 신제품 개발에도 힘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열린 ‘삼성 메모리 테크 데이 2023’에서 HBM3E 제품 ‘사인 볼트’를 처음 공개했다. 현재 HBM3E 8단 제품 샘플을 주요 공급사에 공급하고

있다. 상반기 내 양산 준비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하반기에는 12단 적층기술 기반의 36GB 고용량 제품을 구현해 인공지능(AI)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6세대 제품인 HBM4도 내년 샘플링을 마무리하고, 2026년 양산하겠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HBM에서 잡은 기회를 계기로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HBM만큼은 점유율과 기술에서 앞서 가겠다는 목표다.

시장조사업체 트랜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HBM 시장은 SK하이닉스가 53%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삼성전자는 38%로 2위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점유율을 높였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HBM 등 고성능 AI 반도체 수요량 증가로 전 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주력 제품인 HBM3 매출이 2022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

올해는 생성형 AI, 온디바이스 AI 등 본격적인 AI 개화로 HBM 시장이 더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간 시장 선점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HBM 중장기 수요 성장세는 연평균 60% 수준으로 예상한다”며 “AI용 메모리 수요가 본격화하면서 앞으로 물량보다는 고부가가치 매출을 우선하고, 토털 AI 프로바이더로 입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주문접수도 결제도
대신 받아주고
맛에만 집중할 수 있으니까
매장 경쟁력이
더욱 올라가더군요
”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KT



KT 하이오더

- ✓ 테이블 회전율 개선 · 운영비 절감
- ✓ 다양한 결제수단 · 외국어 지원
- ✓ KT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 직영 설치

하이오더란?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주문과 결제 가능한 프리미엄 테이블 오더 서비스

“
테이블에 앉아서
주문과 결제를
한꺼번에 하니까
너무 편리해요
”



‘암·염’ 한끗차... “간 조기진단·스트레스 관리가 판가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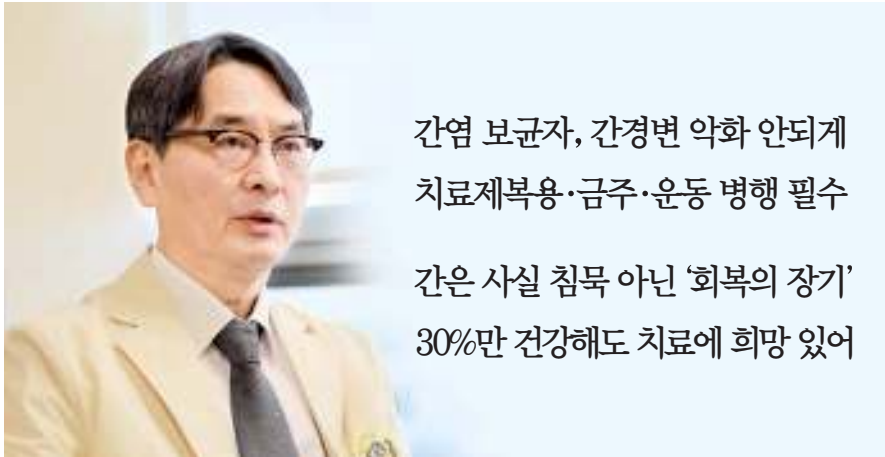
인터뷰

최종영 대한간암학회장

매년 2월 2일은 대한간암학회가 간암의 위험성과 조기 검진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2017년 제정한 ‘간암의 날’이다.

본지는 간암의날을 앞두고 서울성모병원 진료실에서 최종영(사진) 대한간암학회장(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교수)을 만나 간암 예방수칙을 살펴봤다. 지난해 7월 학회장에 취임한 그는 간암 환자 진료와 간이식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식도염, 위염, 맹장염 등 이름에 ‘염(炎)’이 붙는 질병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다. 하지만 ‘간염’은 다르다. B형과 C형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만성 간염을 거쳐 간경변증,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 간암은 조기 발견이 어려운 암으로 꼽힌다. 국내 간암 환자의 평균 5년 상대 생존율도 낮다.



간염 보균자, 간경변 악화 안되게
치료제복용·금주·운동 병행 필수

간은 사실 침묵의 장기
30%만 건강해도 치료에 희망 있어

최 회장은 “간암에 걸리면 희망이 없다는 말은 오랜 이야기다. 고령 환자도 간이식을 하고, 진행이 많이 된 환자도 다양한 약과 수술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시대”라며 “간은 ‘침묵의 장기’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회복의 장기’라는 별명이 붙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간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율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9.3%로, 전체

암 상대 생존율 72.1%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간암의 조기 진단이 어려운 탓이다. 최 회장은 “간암 고위험군은 평소 건강에 이상이 없어도 규칙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하다. B형·C형 간염 보균자는 간경변 등으로 악화하지 않도록 치료제를 복용하고 금주와 운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은 훼손 정도

가 심해 절반 이상 제 기능을 못 해도 신체에 별다른 이상 신호를 보내지 않는다. 최 회장은 간이 우직하고 기특한 면이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간에 염증이 생기거나 훼손돼 70%가 망가져도 환자는 눈치채지 못하기도 한다. 바퀴 밑하면 간의 30%만 건강하게 유지될 시 치료 희망이 있다는 의미”라며 “살아있는 사람의 간을 이식하는 생체 간 이식에서 간의 70%를 환자에게 떼어준 공여자도 무사히 건강하게 퇴원한다”고 설명했다.

간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는 최 회장은 간암의 ‘사회적 여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암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시기는 경제활동이 활발한 40~50대 중년층이기 때문이다. 이 세대는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간염 백신을 맞지 못해 간염바이러스에 취약하다. 최 회장은 “위장암, 대장암 등이 가장 많이 진단되는 연령은 60~70대인 반면, 간암은 그보다 진단 연령이 낮아 사회적 비

용이 더욱 무겁다”며 “그 시기를 지나온 분들이 현재 40~50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예방책으로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꼽힌다.

최 회장은 “50대에 한창 일하며 과음이 잦고 업무도 바빠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않는 사람들이 진료실을 찾아오면 안타깝다”면서 “금주와 스트레스 관리를 당부하면, 직장생활을 하면서 술과 스트레스를 피할 방법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온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국내 간암 치료 환경이 탄탄한 만큼, 환자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과음이 잦고,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직장이나 직업을 바꾸는 과감한 선택을 고려해야 한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그는 “예민한 상태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해소할 나만의 방법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성주 기자 hsj@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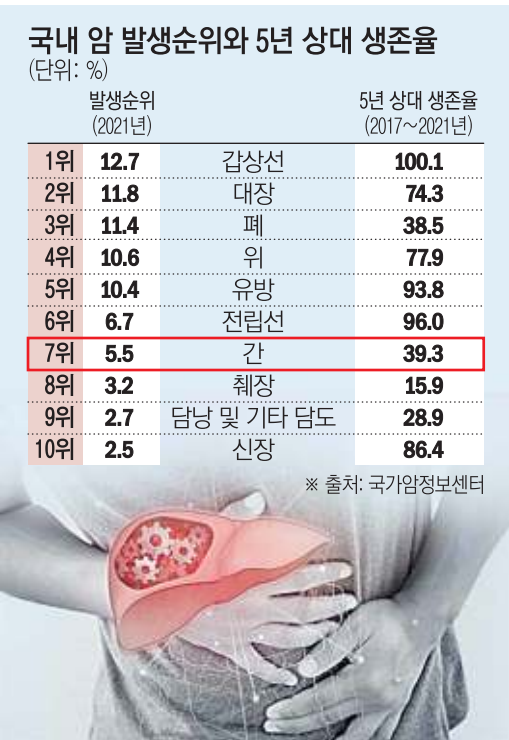
진화하는 국내 간암치료

말기환자 생체간이식 생존율 77%
75세 환자, 이식 4개월 후 건강회복
생체간 이식으로 생존율 개선 기대

국내 간암 치료 옵션이 확대되고 있다. 중증·고령 환자의 간 이식 시행으로 적극적인 치료를 시도하면서다. 30% 수준에 머물렀던 간암 환자 생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의학계에 따르면 간암은 발병 시 완치를 확신하기 어려운 암으로 구분된다. 5년 상대 생존율은 39.3%로 췌장암(15.9%), 담도암(28.9%), 폐암(38.5%)에 이어 치료가

까다로운 암이다. 2021년 기준 주요 암 가운데 간암 발생률은 5.5%로, 10대 암 중 7위다.

‘침묵의 장기’ 간은 기능이 떨어져도 전조 증상 발견이 어렵다. 간암 환자의 이식 수술은 간 손상이 비가역적으로 진행된 환자가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옵션이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간 이식 수술 성적은 주요 선진국 중 선두로 꼽히지만, 기존엔 고령 환자와 말기 환자 치료에는 이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장기 공급이 제한적이고, 이식받은 환자는 평생 면역억제제를 복



고령·중증자도 ‘이식’ 서광

용해야 해서다.

대한간암학회 간암등록사업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간암 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 환자는 약 38%다. 의료계는 최근 고령·말기 환자 대상 간 이식의 효과를 재평가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가천대 길병원은 간암과 B형간염이 동반된 75세 환자를 대상으로 뇌사자 간이식 수술에 성공했다. 환자는 이식 수술 4개월 후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

중증 말기 간질환자들을 위한 긍정적 결과도 나왔다. 중증 말기 환자들에게는 생체 간 이식을 권하지 않는 치

료 경향을 변화시키는 연구결과다.

세브란스병원이 말기 간질환 환자 649명을 대상으로 1년 생존율과 거부반응 발생률을 추적 조사한 결과, 생체 간 이식 환자들의 생존율이 77.3%에 달했다. 반면, 뇌사자 간 이식을 기다리며 수술을 받지 못한 환자의 생존율은 28.8%에 그쳤다. 말기 환자도 생체 간 이식을 받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의미다.

김덕기 세브란스병원 이식외과 교수는 “말기 간질환자도 생체 간 이식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확인한 만큼, 간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이식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성주 기자 hsj@

BMW 리콜 서비스.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문 공고를 합니다.
BMW는 모든 차량이 항상 뛰어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출시 이후에도 엄격한 자체 품질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래와 같이 품질 결함을 발견하여 리콜을 실시합니다.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VANOS) 고정볼트 교체

2009년 09월 04일부터 2011년 08월 23일까지 제작된 BMW 128i, 328i, 328i Convertible, 328i xDrive, 328xi, 523i, 525i, 528i, 528xi, 530i, 535i, 535i GT, 730Li, X3 3.0i, X3 3.0si, X5 3.0si, X5 xDrive35i, X6 xDrive35i, Z4 sDrive30i 총 19개 차종에서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 고정볼트의 제작 결함을 발견하였습니다.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 고정볼트의 품질 불량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정볼트가 느슨해지거나 머리부위가 파손되어 해당 부위에서 오일이 누유될 가능성이 발견되었습니다.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 고정볼트에서 오일이 누유될 경우, 캠 축이 설계된 값에 따라 회전하지 않아 엔진 경고등 및 경고 메시지가 발생되고, 엔진 안전모드가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엔진 안전모드 활성화로 인해 출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 고정볼트를 개선된 볼트로 교체하고, 볼트가 손상되거나 느슨해진 경우 가변밸브타이밍시스템 유닛을 교체하는 리콜을 실시합니다. 운행 중 엔진 시동이 꺼지는 경우 즉시 차량 운행을 중지해 주시고 하차하신 후 BMW 모빌리티 케어(080-269-00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자체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보상에 의거 결함 사실 공개일 이전 1년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결함을 시정한 고객님의 또는 리콜 실시 이후에 결함을 시정하신 고객님의 전국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에서 보상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보상 관련 문의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269-5181

이번 리콜로 인해 고객님의 어려움으로 불편을 끼쳐드린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은 모두 비임더블유코리아(주)에서 부담합니다.
고객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시기 전에 필히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BMW 커뮤니케이션 센터 080-269-5181

BMW 공식 딜러 서비스 센터 ■서울 [강북] 02-3444-7301 [강서] 02-2661-7401 [교대] 02-586-3331 [구로] 02-2039-7301 [대치] 02-569-7401 [동대문] 02-2244-7601 [방배] 02-3477-7401 [서초 중앙] 02-466-7301 [성남] 02-375-7301 [성수] 02-2170-7100 [송파] 02-415-7601 [양재] 02-575-7602 ■경기 [구리] 031-567-7601 [군포] 031-8068-8501 [미사] 031-794-7607 [부천] 032-676-7301 [분당 공내] 031-8016-7301 [수원] 031-206-7501 [성남] 031-721-7601 [안산] 031-8068-8401 [안양] 031-8068-7601 [오트월드] 031-5173-7100 [동탄] 031-8068-7501 [오포] 031-726-7301 [의정부] 031-874-7301 [일산] 031-966-7501 [자유로] 031-994-7401 [평택] 031-656-7501 [인천] 032-881-7401 [인천 계양] 032-721-7301 [송도] 032-710-7401 ■충청 [세종] 044-410-3201 [청주] 043-236-7501 [서산] 041-664-7501 [천안] 041-572-7401 [관평] 042-721-7301 [대전] 042-633-7301 [대전 유성] 042-826-7201 ■경상 [구미] 054-464-7301 [김해] 055-322-7301 [대구] 053-559-7301 [서대구 중앙] 053-655-7301 부산 [광안리] 051-327-7301 [서면] 051-819-7301 [해운대] 051-731-7303 [사상] 051-712-7309 [금정] 051-712-7303 [창원] 055-256-7301 [진주] 055-744-7301 [울산] 052-268-7306 [포항] 054-272-7306 ■전라 [전주] 063-211-0505 [광주] 062-675-7301 [광주 평동] 062-383-7301 [목포] 061-287-7501 [군산] 063-451-7501 [순천] 061-745-7301 ■강원 [강릉] 033-800-7301 [원주] 033-734-7301 [춘천] 033-830-7301 ■제주 [제주] 064-757-7601

BMW 공식 딜러 패스트레인 서비스 센터 ■서울 [강동] 02-488-8766 [도곡] 02-575-7601 [서초] 02-521-7301 [역삼] 02-562-7301 [영등포 롯데빅마켓] 02-6956-7401 [시흥 홈플러스] 02-808-7401 ■경기 [분당] 031-711-7401 [BMW 드라이빙 센터] 032-422-7301 ■경상 [대구 수성] 053-768-7301 [서대구] 053-653-7301 [부산 롯데] 051-792-1810 [울산 신장 롯데] 052-702-8361 ■전라 [광주 상무] 062-384-7301 [광주 광천] 062-367-7301

양곡관리법, 野 주도로 농해수위 통과… 정부 “유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의무매입제 도입이며,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이날 오전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 달 15일 안조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개정안, 한우산업전환법·농어업회의소법·농산물온라인도매거래 촉진법·푸드테크산업육성법 등 6가지 법안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돼 폐기된 법안의 후속 법안이다. 민주당은 법안 폐기 후 시장

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후속법안을 발의했고, 지난달 15일 농해수위 안조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돼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여당은 후속 법안도 먼저 폐기된 법안과 다를 게 없다고 반발했고, 야당 의원들과 공방을 벌인 뒤 법안 심사 보고 도중 퇴장했다.

야당은 양곡관리법 외에도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때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푸드테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산업 발전 가속화 발판을 만들기 위한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등을 단독 처리했다.

“정부 시장개입, 폐기 법안과 다를 게 없다” 與 반발 퇴장

농식품부 “사실상 의무 매입 과잉 생산 등 부작용 우려”

정부는 즉각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사실상 쌀 의무매입에 가격까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장 왜곡은 물론 농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개정안의결 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과잉생산, 가격 하락 등 시장 개입에 부작용을 우려해 정부가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 농어업회의소법안도 농업인단체 등 현장의 반대가 지

속하고 있다.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의무매입이라는 언급은 빠졌지만 가격 폭락이나 폭락이 우려될 때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실상 의무매입제가 될 것으로 농식품부는 우려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면 2030년 연평균 초과 생산량이 43만 톤까지 늘어나고 산지 쌀값도 80kg 기준 현재보다 낮은 17만~18만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의무매입제로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 등 쌀 의무매입 부작용은 여전하고, 공공비축미 가격으로 쌀을 매입할 때 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며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수립해야 하는데 이과

정에서도 기준 설정 등에서 갈등 상황이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 보장해야 한다는 농안법도 농업 발전을 저해를 가져온다고 우려한다. 농안법에 담김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생산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농산물 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예산 범위 내에서 기준가격을 확정해 고시하고, 양곡을 비롯해 채소와 과일 등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내려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 주된 골자다. 제도가 시행되면 쌀을 비롯해 양파와 마늘 등 쌀과 이모작, 후작을 할 수 있는 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과잉생산, 가격 하락은 물론 품질도 떨어질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예상하고 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정영인 기자 oin@



22대 총선 모의개표 실습

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모의개표 실습'에서 관계자들이 투표용지 수검표 실습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非당협위원장 출신〉 與公천 ‘기여도’ 심사, 신인은 상대평가

국민의힘이 총선 공천심사 항목 중 ‘기여도’ 평가 방식을 크게 바꾸기로 했다. 현역 의원을 포함한 직전 당협위원장도 절대평가로, 신인 등 비(非)당협위원장은 상대평가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국민의힘은 1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공천심사 변경안을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비당협위원장 출신 공천신청자 평가에서 100점 만점 중 35점을 차지하는 ‘당 및 사회 기여도 평가’는 점수에 따라 A~E 5등급으로 나누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한다.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을 뒤집은 것이다.

A등급이 35점을 모두 받고, 등급별로 5점씩 깎여 E등급은 15점을 받는다. 지역구별 공천신청자들은 A~E 등급에 균등 분포되도록 조정한다. 가령 한 지역구의 비당협위원장 공천신청자가 5명이면 등급별로 1명씩, 10명이면 2명씩 배치돼 점수를

지역구별 A~E 등급 균등 배치
현역 포함 당협위원장 ‘절대평가’
‘당무감사’ 심사도 이의제기 수용
절대평가 방식으로 반영하기로

부여한다.

당 및 사회 기여도는 공천신청자가 과거 공직 등에서 활동한 경력이나 사회 봉사활동 등을 평가하는 항목이다. 공관위원들이 매긴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평균해 산출한다. 현역 의원을 포함해 직전까지 당협위원장이던 공천신청자는 이 35점이 당 기여도(15점)와 당무감사(20점)로 나뉜다. 당에 몸담아 활동해왔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당무감사 점수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상대평가(A~D등급, 등급별 2.5점 차이)였다. 당무감사 점수가 비슷한데도 누구는 A등급, 누구는 B등급

으로 분류되면 실제보다 점수 차이가 크게 나게 된다는 이의제기를 수용한 것이다.

당무감사 점수는 공천심사에 앞서 현역 의원 컷오프(공천배제)를 위한 ‘교체지수’에도 활용되는데, 이때는 당무감사 점수를 3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해 적용한다. 당무감사는 당무감사 직원들이 현장에서 조사한 종합평가에 여론조사를 합산해 101.25점 만점으로 매겨져 공관위로 넘어온 상태다. 이 가운데 100점까지는 30점 만점을 받고, 이하로는 같은 비율대로 환산된다.

이 같은 교체지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각각 당 및 원내 기여도를 평가한 기여도(20점), 컷오프 여론조사 결과(40점), 면접(10점)을 합산해 권역별 하위 10% 이하의 공천이 배제된다. 하위 10~30%는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깎는다.

이난희 기자 nancho0907@

‘설 명절 공직기강’ 암행어사 뜬다

권익위, 전문조사관 점검반 편성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집중 점검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설 명절 전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각급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의 이같은 금품·선물·향응 수수 등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기관별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다만, 공직자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물·공품 및 관련 상품권은 설 선물 기간인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5일까지에 한해 30만 원까지 허용된다.

권익위는 일부 공직자들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향응을 받았던 부조리한 관행을 바로잡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명절 기간 집중 점검을 해오고 있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이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해 선물 등을 구입하는 행위 △허위출장을 다녔거나 공공기관 물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전문 조사관들로 편성된 점검반을 전국 권역별로 파견해 비노출 점검을 시행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 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설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정대환 기자 vishalist@

한동훈 이어 이재명도… “80兆 투입 도심철도 지하화”

신도림역 찾아 철도 공약 발표
“GTX 등 도심구간 모두 지하화
지상엔 주거복합 플랫폼 조성”

더불어민주당이 1일 제22대 총선을 겨냥해 총사업비 80조원 규모의 ‘도심철도 지하화’를 공약했다. 철도·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을 모두 지하화하고, 해당 자리에 주거복합플랫폼 조성 등 관련 상부개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표와 이개호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는 이날 오전 서울 구로 신도림역을 찾아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은 △철도·GTX·도시철도 도심구간 예외없이 지하화 △상부개발을 통한 지역 내 랜드마크화 △청량리~도심역 복선화, 경원선·GTX-C 통합노선 구축 등 철도망 용량 확대 △균형발전·시민 행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신도림역에서 도심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구권 보장 등 ‘4대 약속’과 이행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법 개정 △건폐·용적률 상향 △사업성 향상을 위한 예타 지침 개선 지하화·통합개발 시민추진단 구성 등 ‘4대 약속’을 골자로 한다.

우선 철도 지하화는 수도권 경인선(구로역~인천역), 경원선(청량리~도봉산~의정부역), 경의선(서울역~수색역~수색~문산 도심구간), 경의중앙선(용산역~청량리~도심역) 등 6개 노선 10개 구간과

그외 권역인 부산·대전·대구·호남 6개 노선 6개 구간 등이 대상이다.

도시철도는 △2호선 신도림역~신림역, 한양대역~잠실역(잠실철교), 신답역~성수역(성수지선) △3호선 옥수역~압구정역(동호대교) △4호선 금정~산본~수리산~대야미, 동작역~이촌역(동작대교), 쌍문역~당고개역 등 △7호선 건대입구역~청담역(청담대교하부) △8호선(북정역~산정역) 등이다. GTX-A(운정~동탄)·B(인천대입구~마석)·C(덕정~수원) 노선 지하화도 추진한다.

이 의장에 따르면 해당 공약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10년 계획이다. 사업비는 약 80조원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가 철도 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지자체가 노선별 기본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민간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구상이다.

정호영 기자 moonrise@

해양온난화 급물살... 한반도 바다, 작년 가장 뜨거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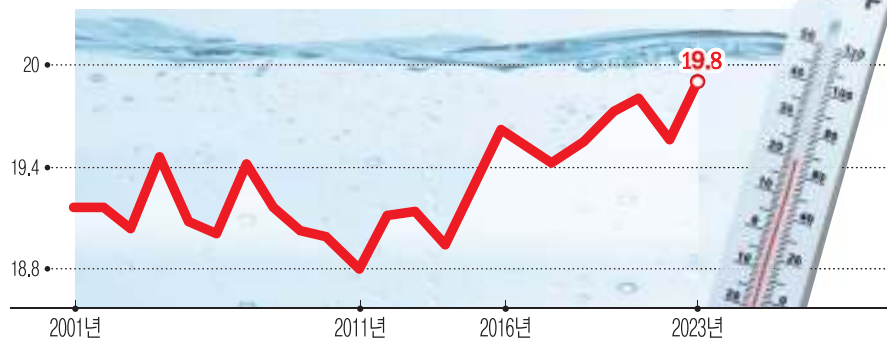
수산과학원, 표층 수온 분석

지난해 우리나라 인근 바다가 수온 관측 이래 가장 뜨거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일 표층 수온을 관측하기 시작한 1990년 이래 지난해 우리나라 해역의 연평균 수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우리나라 해역의 표층 수온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평균 수온은 19.8도를 기록했다. 이는 2001~2020년 평균 수온에 비해 0.6도 높은 수치다. 6월, 9월, 11월의 경우 지난해 20년 대비 각 1도, 1.3도, 0.9도 높

인공위성 관측... 19.8도 기록 평균 수온보다 0.6도 높은 수치 서태평양 더운 해수 유입 영향 정부 “수산업 피해 최소화할 것”

았다. 수온이이례적으로높은원인은북태평양고기압 확장에 따라 기온이 상승하고 대마난류수송량 증가로서태평양의따뜻한 해수가 유입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주된 영향을 받은 동해는 서해나 남해보

한반도 주변해역 표층 수온과 과거 평균 (단위 : °C) ※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다 표층 수온 상승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지난 20년 대비 동해는 수온이 1.3도 올랐지만, 서해 0.7도, 남해 0.5도씩 증가

했다. 기록적으로 높은 수온은 우리나라 해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보고되는 현상이다.

미국 해양대기청은 지구기후보고서에 서 지난해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뒤 전 지구에서 가장 높은 평균 표층 수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식물플랑크톤 등 소형 해양 생물의 감소, 해역의 생산성 약화 등 수산 생물의 서식지 환경 변화와 양식생물의 대량 폐사로 이어질 수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최근 해양 온난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기후 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적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래 수산 기술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할당관세 인하에 수입과일 호황
이상 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 등으로 주요 국산 과일 시세가 들쭉이자 수입 과일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대형마트 등의 유통채널도 정부의 수입 과일 관세 인하를 계기로 일제히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등 판촉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1일 서울 시내 대형마트 수입 과일 판매대에 과일이 진열되어 있다.

연합뉴스

가덕도신공항 ‘턴키 방식’ 확정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사 기간 단축·단일 공구 추진 올해 상반기 중 공사 발주 계획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부지 조성공사가 공사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지 조성공사 비용은 약 11조원 규모에 달한다. 활주로 조성을 위한 토목공사와 전기·통신 시설 등이 포함돼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국토부는 턴키 방식으로 하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데다, 부지 조성공사의 여러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점을 인정해 단일 공구로 추진할 계획이라

고 설명했다. 또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모든 단계에는 건설정보모델링(BIM)을 적용해 건설 안전·품질을 높인다.

낙찰자 결정 방식은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해 각각 평가한 합산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가리는 ‘가중치 기준 방식’으로 정해졌다. 부지 조성공사에 해상 방파제 설치, 육·해상 매립 작업 등 난도가 높은 작업이 포함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이번 심의 결과를 상세히 알리고, 올해 상반기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김경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민간의 창의적 제안이 필수”라며 “건설업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온라인쇼핑 거래액 작년 최대... 여행·교통 20兆 켄다

中 해외직구, 美 제치고 첫 1위 e쿠폰 서비스 작년보다 35% ↑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이 220조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특히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에 따른 국내외 여행 수요 급증 여파로 여행·교통 관련 거래액이 사상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해외직접구매(직구)는 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미국을 제치고 처음 1위 지역으로 올라섰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27조 3470억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다. 이는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이다. 다만 증가폭은 2021년(20.2%), 2022년(10.3%)보다는 둔화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여행·교통서비스가 전년보다 44.0% 증가한 24조 912억원으로 집계됐다. 팬데믹 그늘에서 벗어나면서 해외여행 등이 늘어난 영향이다. ‘기프트콘’과 같은 이(e)쿠폰 서비스도 최근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전년보다 34.9% 늘어나 9조 882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거래액에서 차

2023년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 (단위: 억원)

※ 출처: 통계청



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음식료품은 29조 8690억원으로 집계돼 1년 전보다 12.1% 증가했다. 반면 컴퓨터 및 주변기기(-4.6%), 서적(-5.3%), 스포츠·레저용품(-2.1%)에서는 감소했다.

상품군별 구성비는 음·식료품(13.1%), 음식서비스(11.6%), 여행·교통서비스(10.6%) 순이다. 여행·교통, 문화·레저, e쿠폰, 음식, 기타 서비스를 제외하고 상품만 추진 온라인쇼핑 상품 거래액이 전체 소매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5%였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67조 8276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7.0% 늘었다. 작년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20조 3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해외 직구는 2014년 관련 통

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작년 온라인 해외직접 구매액은 6조 7567억원으로 전년 대비 26.9% 증가했다.

직구 시장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저가 상품 공세로 크게 성장한 중국이 견인했다. 지역별로 중국은 3조 2873억원으로 전년보다 121.2% 폭증했다. 전체 직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그간 1위 자리를 지켜온 미국은 1년 전과 비교해 7.3% 줄어든 1조 8574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처음 중국이 미국을 앞질렀다. 일본은 엔저 영향 등으로 전년보다 11.0% 늘어난 4742억원으로 집계됐다. 상품군별로는 의류·패션 관련 상품(43.5%), 생활·자동차용품(35.9%), 스포츠·레저용품(65.5%) 등이 크게 늘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나트륨 폭탄’ 냉동치킨... “과다 섭취 주의”

포화지방도 1일 기준치 ‘홀쩍’ 제품 간 가격 최대 3.8배 차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냉동 치킨 제품이 포화지방과 나트륨을 기준치 이상 과다 섭취할 수 있는 위험이 있고 가격은 최대 3.8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프랜차이즈 치킨값 상승 여파로 수요가 늘고 있는 냉동 치킨 10개 제품의 영양성분과 안전성을 시험하고 가격을 비교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빠있는 제품과 빠없는 제품 5종씩 모두 10개 제품 조사에서 슈넬치킨이 뼈를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부위인 ‘가식부’ 200g당 포화지방 함량은 16.6g, 나트륨 함량은 1392mg으로 각각 가장 높았다.

냉동 치킨 구매 이력자 1000명을 대상으로 1회 섭취량을 설문 조사한 결과 400~600g 포장 제품을 반봉지 섭취한다는 대답이 37.3%로 가장 많았고 한봉지 모두 먹는다는 응답이 26.9%로 2위를 차지했다. 이를 고려해 만약 가식부 300g을 섭취할 경우 냉동 치킨 제품에 따라 포화지

방은 7.5~24.9g(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비율 50~166%), 나트륨은 1122~2088mg(56~104%) 각각 포함돼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초과 섭취할 수 있다. 예컨대 슈넬치킨은 가식부 300g 섭취 시 포화지방함량은 24.9g(166%)이고 나트륨은 2088mg(104%)이다. 에어프라이어 순살치킨은 포화지방이 18.6g(124%)으로 각각 1일 기준치를 초과했다.

가식부 300g은 빠있는 치킨은 7조각이고, 순살치킨은 10조각 정도이다. 조사 대상 냉동 치킨의 100g 기준 가격은 최소 950원(시그니처 순살치킨)에서 최대 3660원(고메 소비바 치킨 소이어니봉)으로 제품 간 최대 3.8배 차이가 났다. 원재료를 보면 고메 소비바치킨 소이어니봉과 골든치킨 봉만 국산 닭고기를 사용하고 나머지 제품은 모두 태국산과 브라질산, 덴마크산 등 외국산을 쓴다. 이밖에 제품별 단맛과 짭짤함에 차이가 있었고, 보존료와 미생물 안전성 시험에선 10개 제품 모두 식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냉동 치킨을 간식으로 섭취하는 경우 콜라·맥주 등 함께 먹는 식품의 영양성분을 참고해 과도한 열량 섭취 또한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해근 기자 pinvol1973@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남궁돈 만두명장
since.1988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울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목2동 '남궁돈 만두명장' 남궁돈 사장님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소상공인분들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키오스크, AI CCTV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명 : 고효율,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

신청기간 : 2024년 1월 22일(월) ~ 2월 23일(금)

신청방법 : 하나 파워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anapoweron.com>

신청하러 가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뉴욕커뮤니티뱅크〉

NYCB 주가, 하루새 38% ‘뚝’… 美지역은행 위기 재점화

시그니처은행 자산 인수 후폭풍
4Q 순손실 2.5억달러 어닝쇼크
주가 곤두박질… 25년 만에 최저
상업용 부동산발 위기설도 제기

뉴욕커뮤니티뱅크(NYCB) 주가가 하루 새 무려 약 38%나 급락하면서 미국 지역은행 위기가 다시 불거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NYCB 주가는 이날 뉴욕증시에서 전날보다 37.64% 내린 6.47달러에 마감했다. 이날 폭락은 NYCB 상장 이후 최대 일일 낙폭이다. 또 주가는 2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장중 한때는 하락 폭을 46%까지 키우기도 했다.

이날 작년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예상 밖



깜짝 적자를 보고한 것이 주가를 끌어내렸다. NYCB는 지난해 4분기에 2억 52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순이익이 전년 동기의 1억 7200만 달러에서 2억 6200만 달러로 늘어났을 것이라는 시장 전망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다. 작년 4분기 대손충당금은 5억 5200만 달러로 전 분기의 6200만 달러에서 9배 가까이 급증했다.

매출도 8억 8600만 달러로 전문가 예상치 9억 3200만 달러에 못 미쳤다.

NYCB는 작년 초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당시 무너진 지역은행 중 한 곳의 자산을 인수한 것이 실적 쇼크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토마스 칸케미 NYCB 최고경영자(CEO)는 회사의 저조한 분기 실적에 대해 “지난해 위기 때 파산한 시그니처은행으로부터 130억 달러

상당의대출을 포함해 40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인수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인수로 자산이 100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난 NYCB는 중형은행으로 분류되면서 더 엄격한 자기자본 및 유동성 요건들을 적용받게 됐다. NYCB의 자산은 작년 12월 기준 1163억 달러로 집계됐다. 동사는 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배당금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NYCB는 분기 배당금을 주당 5센트로 기존 대비 70%가량 줄였다.

상당한대출에 오피스포츠폴리오의 가치가 재산정된 것이 반영됐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미국 은행권을 다시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출 수익 감소 등 지역대출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건전성 우려가 주가 폭락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NYCB 쇼크로 다른 지역은행들 주가도 이날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벨리내셔널뱅크가 7.77%, 시티즌스파이낸셜그룹이 4.69%, 리전스 파이낸셜 코프가 4.16% 각각 하락 마감했다. KBW 지역은행지수는 6% 내리면서 작년 지역은행 위기 때인 3월 13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작년 봄 지역은행 연쇄 파산 당시와 비교하면 그 충격은 아직 크지 않다고 봤다. 단순 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것일 뿐 은행 자체가 위기는 아니라는 소리다. 뉴욕커뮤니티뱅크의 지난해 4분기 예금 감소율은 2%에 그쳤다. 시그니처은행 인수와 관련한 수백 예금을 제외하면 감소 폭은 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람들이 우려하는 ‘뱅크런(대규모 예금인출)’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효선 기자 hsbun@

살 빼는 약으로 덩치 키운 ‘노보노디스크’

비만치료제 ‘위고비’ 매출 5.1배 ↑
유럽 2번째 시총 5000억달러 돌파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가 블록버스터 비만치료제 ‘위고비’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어닝서프라이즈’에 노보노디스크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럽 기업 두 번째로 시가총액 5000억 달러(약 665조 6500억 원)를 돌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2322억 크로네(약 29조 4406억 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순이익은 51% 늘어난 836억 크로네였다. 특히 노보노디스크의 효자 상품인 위고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1배 폭증한 313억 크로네를 기록했다.

호실적 발표에 노보노디스크 주가는 장중 한때 6% 치솟으면서 시총이 5000억 달러를 넘었다. 유럽에서 시총 5000억 달러 이정표를 달성한 것은 루이비통모에헤네

시(LVMH)에 이어 두 번째다. 지난해 9월 노보노디스크는 LVMH를 제치고 시총 기준 유럽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현재 LVMH 시총은 4220억 달러 수준이다.

노보노디스크의 매출 급증 배경에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비만 인구 비율이 40%에 달한다. 비만 인구 증가에 따라 수술 없이 체중 감량 효과를 볼 수 있는 약물을 찾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노보노디스크는 “현재 4000만 명 이상이 우리의 혁신적인 당뇨·비만 치료제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리서치는 “2030년에는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가 77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수요 폭증에 따른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노보노디스크는 6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노보노디스크는 넘쳐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적으로 저용량 위고비 공급을 줄였다. 더그랑가 노보노디스크 북미사업부 운영책임자는 “올해 점진적으로 공급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아현 기자 cahyun@



한 달 지났는데… 아물지 않은 지진 상흔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1월 한 남성이 한 달 전 노토반도를 강타한 규모 7.5 지진으로 인해 전소된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다. 지진으로 238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1만 4000여 명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고 4만 채 주택은 단수 상태다. 이번 지진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이시카와현 와지마시에서 1월 한 남성이 한 달 전 노토반도를 강타한 규모 7.5 지진으로 인해 전소된 자신의 집 앞에 서 있다. 지진으로 238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1만 4000여 명이 여전히 피난 생활을 하고 있고 4만 채 주택은 단수 상태다. 이번 지진은 2016년 구마모토 지진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인명 피해를 입힌 것으로 확인됐다. 와지마(일본)/AFP연합뉴스

“SNS가 사람 죽여”… 고개숙인 저커버그

〈메타 CEO〉

미국 의회가 아동 학대와 성 착취 등을 방관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기업을 향해 거침없는 비난을 내놨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피해 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죄했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가 개최한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한 청문회에서는 이날 참석한 SNS 플랫폼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청문회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포함해 스냅챗의 에번 스피겔, 틱톡의 추소우즈, 엑스(X·옛 트위터)의 린다 야카리노 등이 증인으로 나왔다.

방청석에는 소셜미디어에 의해 피해를 본 피해자 가족들이 자녀의 사진을 들여 보이며 자리를 채웠다. 이들은 CEO들을 비난하고 의원들의 질타에 박수를 보내는 한편, 가족을 잃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美상원 미성년자 성 착취 청문회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집중 질타
“끔찍한 일 재발 막기 위해 노력”
스냅챗·틱톡·엑스 CEO 등 출석

공화당 소속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증인석에 나온 CEO들을 향해 “여러분은 손에 피를 묻히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SNS 기업은 긍정적인 면과 함께 너무나 어두운 면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성년자들이 이들 소셜미디어의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면서 목숨까지 잃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전 세계 약 20억 명의 사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의 저커버그 CEO에 대한 질타가 집중됐다. 미국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상 아동 성학대물 신고는 지난해 사상 최대치(3600만여 건)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페이스북에서만 2000만 건(약 55%)이 넘는 신고가

나왔다.

조쉬 하울리(공화) 의원은 저커버그 CEO를 일어서게 한 뒤 자녀 사진을 들고 있는 가족들을 향해 “당신의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이 있나”라며 “당신은 피해 가족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레이엄 의원은 인스타그램에서 사기꾼을 만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성 착취의 피해자가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의 아들 사례를 부각하며 저커버그 CEO에게 “할 말이 있는지”라고 묻기도 했다.

답변에 나선 저커버그 CEO는 “정말 끔찍하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에 대해 죄송하다”며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어 “누구도 여러분의 가족이 겪었던 일들을 겪어서는 안 되며, 그것이 우리가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라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美유권자 53% “트럼프 유죄 뎀 안 뽑아”

주요 경합주 7곳 여론조사 결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는 오히려 지지층 결집 효과를 불러왔지만, 유죄 판결 시 대선 판도를 가를 경합주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룸버그와 모닝컨설트가 지난 달 16~22일 애리조나와 조지아,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위스콘신, 네바다 등 주요 경합주 7곳 유권자를 대상으로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3%가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에게 투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실행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수치는 55%로 높아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91건의

범죄 혐의로 총 4차례 기소됐다. 현재 관련 재판 출두가 공화당 경선에서 오히려 그의 입지를 강화하는 긍정적 결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는 그의 법적 투쟁이 정치적으로 도움이 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특히 7개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 바이든 현 대통령보다 평균 6%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난 현 상황에서 뚜렷한 경고 신호다.

경합주 내 공화당 지지자들조차도 약 23%가 “유죄 판결 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에 소극적일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의 태도는 더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파의 79%가 “유죄 확정 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는 것을 꺼릴 것”이라고 밝혔다. 변효선 기자 hsbun@

<2023년>

삼성, 印 스마트폰시장 1위 탈환… 갤럭시S24, 초격차 벌린다

삼성 18% 비보 17% 샤오미 16%
전문가 “갤A시리즈 강력한 성과”
수익성 아쉬움…애플, 매출 1위

삼성전자가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에 올랐다. 2017년 이후 처음이다. 올해는 사상 첫 인공지능(AI) 폰 갤럭시S24를 통해 수익성에서도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전략이다.

1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인도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18%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17% 점유율의비보(VIVO)였으며, 3위는 샤오미(16.5%)가 차지했다. 리얼미(12%), 오포(10.5%)가 뒤를 이었다.

슈밤 싱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삼성은 갤럭시A 시리즈의 강력한 성과, 오프라인에서의 공격적인 마케팅, 프리미엄에 대한 집중적인 접근 방식에 힘입어 작년 인도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인도 스마트폰 출하량은 1억 5200만 대를 기록하며 전년과 비슷한 성장률을 보였다. 상반기에는 수요 감소와 재

고 축적으로 인한 거시경제적 혼란이 지속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냈다. 다만 하반기부터 5G 업그레이드와 예상보다 나은 명절 매출로 시장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4분기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 25% 성장했다.

작년 4분기 삼성전자는 16.8%로 샤오미와 비보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신제품 효과가 사라진 영향으로 파악된다.

삼성전자가 14억 인도 시장에서 연간 점유율 1위에 올랐지만, 수익성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업계에선 시장 점유율 보다는 프리미엄 제품을 많이 팔아 수익성을 높이는 게 향후 신형 시장 공략의 핵심 포인트라고 본다.

실제로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시장 점유율 조사에서 애플은 ‘그외(Others)’ 제품군에 속해있다. 인도 시장 점유율이 5위권 밖인 탓이다. 반면 애플은 지난해 출하량 1000만대를 처음 돌파하며, 연간 매출 1위를 유지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 갤럭시 평균판매단가(ASP)는 애플 아이폰의 3분의 1 수준이다. 애플은 아이폰 1대를 팔아 삼성 갤럭시 3대를 팔 때와 비슷한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다. 인도 시장 성과 일등공신인 중저가 브랜드인 갤럭시A 시리즈보다 프리미엄 제품인



지난달 인도 구루가온 ‘삼성스토어’에서 방문객이 ‘갤럭시 S24’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인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단위: %) ※ 2023년 기준 ※ 출처: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삼성전자	비보(VIVO)	샤오미	리얼미	오포	기타
18	17	16.5	12	10.5	26

갤럭시S 시리즈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4를 통해 인도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갤럭시S24 시리즈가 제공하는 AI 실시간 통역 기능에 인도의 힌디어가 포함됐다. 인도에서 갤럭시S24 시리즈 예약 판매량은 전작의 기록을

훌쩍 넘었다.

라주 풀란 삼성전자 인도 MX사업부 수석 부사장은 “갤럭시S24 시리즈의 큰 성공은 인도 소비자들 신기술을 조기에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우리 소비자들 갤럭시S24 시리즈에 압도적인 반응을 보여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폰 반납하면 60만원대 갤S24 韓이 가장 저렴

삼성전자가 인공지능(AI)을 세계 최초로 탑재한 스마트폰 갤럭시S24 시리즈를 지난달 31일부터 전세계 120여 개국에서 순차 출시한 가운데 한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자·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닷컴’을 통해 판매되는 갤럭시S24 울트라 256GB 자급제폰 출고가는 169만8400원이다. 삼성닷컴에서만 적용되는 즉시 할인 금액 4만3500원, 카드사(삼성, 하나, KB국민) 할인 6만 원, 그리고 중고 기기 보상에서 가장 보상 금액이 높은 갤럭시Z폴드5 1테라 기준 120만 원을 적용하면 갤럭시S24 울트라는 130만3500원을 할인받은 금액 39만49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사용자가 가장 많은 전자 갤럭시S23 울트라 256GB로 적용할 시에는 95만 원을 할인받은 64만4900원에 AI폰 신작을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조건으로 미국에서 삼성닷컴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면 즉시 할인과 카드 할인은 제공되지 않는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지난달 완성차 5개사 판매 6% ↑ … 한국지엠 166% 급증

<국내외 합산>

쉐보레 트랙스 해외만 2만여대 KGM·르노코리아는 판매 감소

현대자동차, 기아, GM 한국사업장(한국지엠), KG모빌리티(KGM), 르노코리아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사가 지난달 글로벌 시장에 총 61만4473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5% 늘어난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1일 완성차 업체의 발표를 종합하면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는 국내에 10만2719대, 해외에 51만1754대를 판매

했다. 국내 판매는 2.3% 늘었고, 해외 판매도 6.2% 증가했다. 전체 판매량은 현대차 1.8%, 기아 4.2%, 한국지엠 165.8% 늘었지만 KGM은 16.6%, 르노코리아는 81.4% 줄었다.

현대차는 지난달 국내 4만9810대, 해외 26만5745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1.8% 증가한 총 31만5555대를 판매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국내 판매는 3.3% 감소, 해외 판매는 2.8%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실적을 이끌었던 그랜저 판매는 전년 대비 60.2% 감소한 3635대에 그쳤다.

기아는 지난달 국내 4만4608대, 해외 20만73대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24만4681대를 판매했다. 국내는 15.3%, 해외는 2.0% 증가한 수치다. 레저용차(RV)가 국내 판매 실적을 견인했다. 쏠렌토가 9284대 판매되며 1위에 올랐다. 카니발이 7049대, 스포티지가 5934로 뒤를 이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내수 2894대, 수출 4만300대를 포함해 총 4만3194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165.8% 증가한 수치다. 특히 해외 판매는 22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판매량이 늘며 성장세를 이끌었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해외에서 1월 한 달간 총 2만3703대가 판매되며 실적을 견인했다.

KGM은 지난달 내수 3762대, 수출 5410대를 포함 총 9172대를 판매했다. 전년 동월 대비 16.6%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로는 46.1% 증가한 수치다. 르노코리아는 지난달 내수 1645대, 수출 226대를 포함해 총 1871대를 판매하며 지난해 1월보다 판매량이 81.4% 줄었다.

강문정 기자 kangmj@



두산테스나 서안성 사업장. 사진제공 두산

두산테스나, 엔지온 인수 이미지 센서 후공정 강화

두산테스나는 이미지센서(CIS) 반도체 후공정 전문기업 ‘엔지온’의 인수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엔지온은 테스트를 마친 이미지센서반도체 웨이퍼에서 양품의 칩을 선별해 재배열하는 공정을 전문으로 하며, 웨이퍼연마·절단 등 반도체 후공정에 필수적인 기술을 갖췄다.

또한 CIS뿐 아니라 디스플레이 구동칩(DDI), 지문인식센서(Touch IC)를 비롯해 최근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각광받는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등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두산테스나는 이번 엔지온인수를 통해 CIS 관련 반도체 후공정 밸류체인을 확대하고, 향후 테스트와 리컨(Reconstruction)을 결합한 CIS 반도체 후공정 턴키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산테스나 관계자는 “양사가 이미지센서반도체와 관련해 연속되는 후공정을 맡고 있어 상호 긍정적인 시너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엔지온은 리컨 공정의 수율을 높이기 위해 고효율, 친환경 CLD(Chip Level Delamination) 공법을 개발해 양산을 준비 중이다. CLD는 화학약품 없이 테이프만 사용해 절단 공정에서 나온 실리콘 잔여물이 웨이퍼 칩 센서에 붙지 않도록 하는 공법이다.

김민서 기자 viajaporlune@

“대기업 73%, 작년보다 수출 늘거나 비슷”

한경협, 2024년 수출전망조사 철강·석유·화학 업종 부진할 것

주요 대기업 10곳 중 7곳이 지난해보다 올해 수출이 증가하거나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동반 불황, 지정화 리스크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동력 확보를 위해 관련 정책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매출액 1000대 기업 중 12대 수출 주력 업종 150개사를 대상으로 ‘2024년 수출전망조사’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수출이 지난해보다 증가·비슷(73.3%)할 것이라는 응답이 감소(26.7%)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기

업이 꼽은 주요 이유는 △수출 대상국의 수요 개선 39.1% △신사업 발굴 및 사업 다변화 효과 20.9% 등이다. 반면, 수출이 감소를 전망한 기업은 △높은 원자재가격 지속으로 수출 경쟁력 약화 40.0% △미·중 등 주요 수출 대상국 경기 부진 37.5%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올해 수출 증가율 전망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자동차부품 5.8% △바이오·헬스 5.0% △전기·전자 4.2% △자동차 3.9% △일반기계 3.5% 순이다. 수출이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는 업종은 △철강 -0.7% △석유제품 -0.6% △석유화학 -0.2% 등이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 우선순위로 ‘원자재 수입관세 인하 또는 할당관세 적용품목 확대’(2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가장 우려되는 수출 리스크로 ‘세계 경제 저성장’에 따른 수요 감소(42.0%)라고 답했다. 이동욱 기자 toto@

포스코 “안전하계” 30년 만에 근무복 개선



포스코가 30년 만에 근무복을 새롭게 바꿨다. 1일 포스코는 현장 안전을 중시하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근무복에 시인성이 높은 옐로우 색상을 중심으로 반사띠를 적용하고 원단 품질과 기능을 한층 개선했다고 밝혔다.

포스코가 이전 스카이라인 블루 색상인 근무복을 도입한 시기는 1993년으로 이번 교체는 30년 만이다.

새 근무복은 유럽국제안전규격(EN ISO 20471)에 따라 어두운 현장에서도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옐로우색과 남색을 대비해 시인성을 극대화했다. 반사띠를 전·후면과 상·하의에 모두 적용했다.

현장 근무 여건에 맞게 신축성 및 땀 흡수 건조 기능 등 품질이 한층 강화됐다. 국내 근무복 소재로는 처음으로 기능성 원단 T wave를 적용했다. 이동욱 기자 toto@

직접대출 힘든 中企에 4.5조 융자… CBAM 대응도 지원

〈탄소국경조정제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신년 간담회

“중소기업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직접금융 규모를 4조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일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신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올해 중점 추진 과제로 △금융지원을 통한 역동성 회복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글로벌 신시장 진출 △맞춤 인재육성 등 크게 4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금융지원에선 중소벤처기업의 유동성 확보 지원을 위해 직접융자를 기존 4조 2144억 원에서 4조4632억 원으로 6%가량 늘린다. 중소기업의 경우 민간금융을 활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출 지원 목표를 75% 상향하는 것이 중진공의 구상이다. 직접금융 지원 비중은 2022년 73.3%에서 지난해 74.1%로

기존 6% ↑ … 4조5000억원 확대
대출지원 비중 75%로 상향 목표
탄소배출량 컨설팅 등 신규 추진
외국인 유입 인력문제 해결 노력

확대돼 왔다.

강 이사장은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직접융자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중진공이 직접대출을 늘린다는 것은 어려운 중소기업에 조금이라도 좀 더 돕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중진공은 직접금융 대상 규모를 약 2만 개사로 보고 있다.

직접금융은 확대되지만 이차보전 지원 예산은 5000억 원으로 줄어든다. 중진공은 지난해 직접금융으로 4조2000억 원, 이차보전 사업으로 8000억 원을 공급했다.

유럽연합(EU)의 CBAM 시행에 따른 탄소배출량 컨설팅·검증 지원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EU 국가에 철강, 알루미늄,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이 1일 양천구 서울 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6대 품목을 수출하는 국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한다.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EU 검증기관을 활용한 배출량 검증 등을 통해 CBAM에 대응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강 이사장은 “2026년부터 CBAM이 시행되지만 사실상 준비가 거의 안 된 상태”라며 “자금이나 인력,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다. 불과 2~3년밖에 안 남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의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유입 및 활용 지원도 추진한다. 그는 “숙련도가 떨어지는 외국인력에 대해 직무기술 교육이나 컨설팅, 노무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의 외국인력 유입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과 중소벤처, 스타트업 간 취업 매칭도 지원한다. 스마트 제조 전문 인력 관리 체계도 고도화 한다. 스마트공장bauer 등 실습교육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 제조 전문인력을 올해 1만6000명 양성한다. 2027년까지 8만 명 양성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높은 부채비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중진공의 부채는 2022년도 기준 약 24조390억 원, 부채비율은 475%다. 강 이사장은 “관련 법상 중진공은 자산의 20배까지 채권 발행이 가능하다. 중진공의 자산이 5조 원대여서 100조 원 수준까지 할 수가 있다”며 “중진공의 존립 이유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이를 토대로 국가 경제를 살리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의 부채비율은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현장 요구에 맞는 정책 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하고, 임원 책임경영과 정책 대응력을 강화해 정책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약 300만 개사의 빅데이터와 정책집행 노하우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GC 녹색자

비맥스, 마침내

제 24회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
대통령상 수상



이 영광을
약사님과
고객님께

비맥스

중견기업 절반 “국내 투자 올해에도 유지·확대할 것”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하는 상황이지만 절반 가까운 중견기업이 올해도 국내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를 통해 중견기업의 48.5%가 투자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힌 이들 중견기업의 91.1%가 투자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43.6%로 지난해 대비 28.1%포인트(p) 상승했다. ‘기존 산업 분야 사업 확장

하지만, 올해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고 밝힌 중견기업 중 최근 3년 내 해외 투자를 국내 투자로 변경한 사례가 10%에 불과한 조사 결과에서 보듯, 국내 산업 기반의 안정성을 약화할 소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으로, ‘투자·R&D 등 세제 지원(66.7%)’과 ‘인력 개발(33.3%)’, ‘정부-기업 간 소통 강화(33.3%)’ 등 해외 투자 기업의 복귀를 위한 정책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이후로 투자 계획을 순연한 중견기업은 41.7%로 조사됐다.

투자 계획이 있는 중견기업인들은 ‘자금 조달 애로(58.7%)’, ‘인력난(29.1%)’,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20.7%)’, ‘노동·고용 규제(19.0%)’, ‘환경 규제(17.9%)’, ‘공장 신·증설 관련 입지 규제(15.6%)’ 등을 투자 저해 요인으로 지목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확대(55.3%)’를 꼽았다. ‘투자·R&D 등 세제 지원 강화(50.8%)’, ‘물가안정 및 내수 시장 활성화(36.3%)’, ‘금리인상 속도 조절(27.4%)’, ‘인력 수급 해소(2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국내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신호”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의 ‘허리’인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보증 규모 확대 등 중견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중견련,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투자 확대 기업, 작년비 28%p ↑ 해외→국내 투자 변경 10% 불과 글로벌 시장 확대 정부지원 필요

(64.1%)’과 ‘노후 설비 개선·교체(32.1%)’를 주된 이유로 꼽았다. ‘신사업 진출(25.6%)’, ‘ESG 대응(6.4%)’, ‘R&D(6.4%)’, ‘디지털 전환(3.8%)’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투자 수요가 뒤를 이었다.

중견기업인들의 주요 투자 형태는 ‘기존 설비 개·보수(55.9%)’, ‘신규 설비 도입(44.7%)’, ‘R&D(25.7%)’, ‘인력 개발(11.2%)’, ‘친환경(11.2%)’ 등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의 16.3%는 ‘해외 수요 증가(40.0%)’, ‘비용절감(35.0%)’,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35.0%)’,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26.7%)’ 등을 위해 올해 해외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글로벌 진출 측면에서 중견기업의 해외 투자 확대는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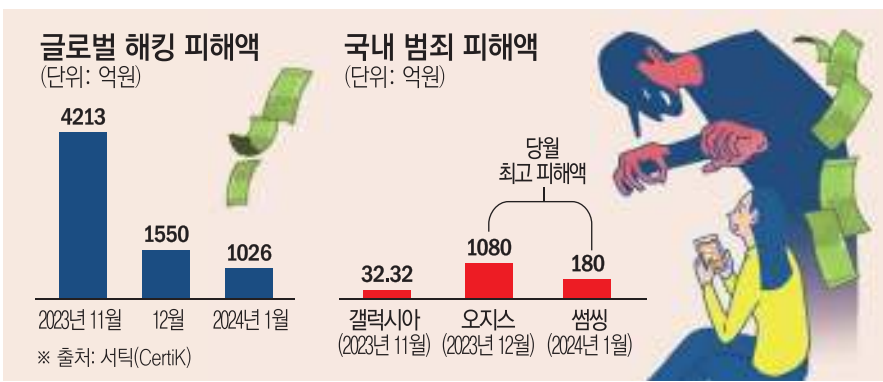
자고나면 터지는 코인 해킹... ‘보안투자 소홀’ 부메랑

최근3개월간 갤럭시아부터 오지스, 씬씽까지 국내 가상자산 기업에 대한 해킹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연이은 사고에 가상자산 업계가 뒤숭숭한 가운데, 전문가들은프로젝트들이보안과내부통제시스템에 더 투자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한 달에 한 번꼴로 국내 가상자산 재단과 기업에 대한 코인 탈취 사건이 발생했다. 먼저 지난해 11월 갤럭시아SG는 재단 지갑에 있는 갤럭시아 토큰 3억 8000개를 해킹당했다. 당시 시세 기준 약 32억 3000만 원 정도이다. 지난달 1일에는 오지스가 오르빗 체인에 있는 1080억 원 규모 가상자산을 도난당했다. 같은달 27일에는 씬씽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자사 코인을 180억 원어치를 탈취당했다. 글로벌 웹3 보안기업 서탁이 매달 발간하는 월간 가상자산 시장 보안사고 리포트에서 두 회사는 12월(오지스)과 1월(션씽) 각각 피해 규모 1등을 차지했다. 오지스는 현재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사

‘갤럭시아’부터 ‘오지스’ ‘션씽’까지 3개월간 한달에 한번꼴 탈취사고 정보보호 ISMS인증 받고도 털려 규모가 큰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코인발행 프로젝트 보안체계 취약 투자 늘리고 내부 통제도 강화해야

측에서 제기했고, 씬씽은 외부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씬씽과 오지스는 정보보호인증 체계를 받은 상태였다. 오르빗은 지난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받았고, 씬씽 운영사 이멜벤처스는 2022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지정한 ISO/IEC 27001 국제표준 규격 인증을 취득했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보안사고 위험이 나날이 증가하는 가운데, ISMS 등 정보 보안 인증이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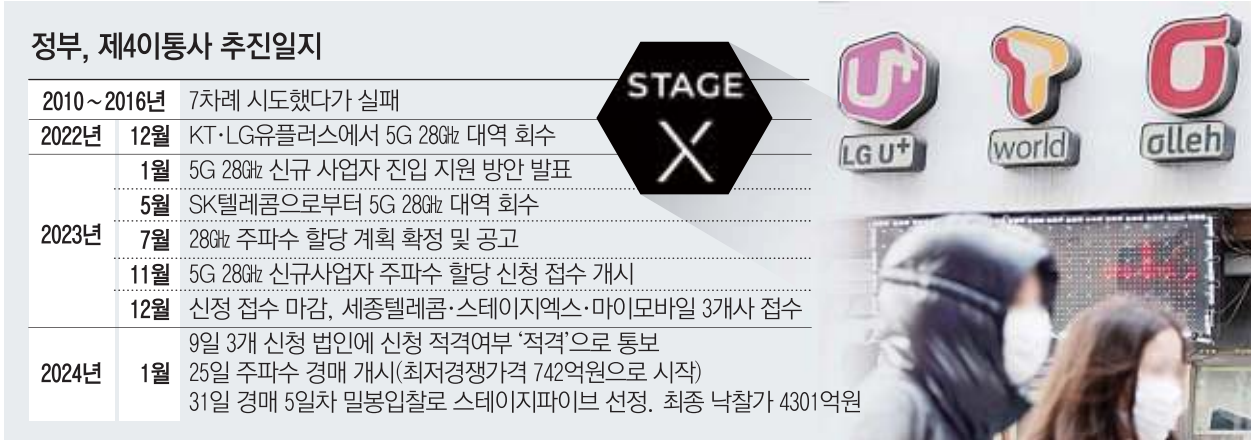


는다고 입을 모은다. ISMS 인증을 받았던 지다 역시 2023년 3월 해킹으로 당시 시세 기준 약 190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바 있다. 오지스의 경우 2020년과 2022년에 자사가 개발한 서비스에 해킹이 발생한 이후 ISMS를 취득했지만, 이번엔 또 해킹이 발생했다. 오지스 측은 해킹 사건 원인이 전 CISO(최고정보보호책임자) A씨가 방화벽을 취약하게 만든 탓이라고 주장하며 내부자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다. 오지스는 현재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기업 규모가 크고 보안에 투자를 많이 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달리 국내 코인 발행 프로젝트의 보안 체계가 취약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이멜벤처스는 직원 30명, 오지스는 직원이 58명인 작은 스타트업이다. 보안 무사고를 기록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경우 전체 직원이 200여명인데 보안 조직 전체 인력 대비 10% 수준으로 일반 IT기업보다 많다. 또 코인원은 정보 보호 예산은 IT 파트 전체 예산의 약 30%

로 3분의 1 수준으로 투자하고 있다. 코인원은 외부 기관을 통해 보안 아키텍처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전문 컨설팅도 받고 있다. 김지혜 정글비즈니스솔루션 본부장은 “메인넷이나 디앱 같은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에 대한 기술감사(Audit)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을 추천한다”면서 “특히, 대부분의 국내 프로젝트가 시스템 없이 메뉴얼로 접근 권한 또는 키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 휴먼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톨이나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오지스의 경우 직원 내부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회사에서 직접 밝혔는데, 직원의 일탈이라 해도 회사의 책임이 작아지는 게 아니다”라면서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패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이시은 기자 zion0304@

이통3사 독점 깬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독점...“승자의 저주 없다”



이동통신 4사 시대

스테이지파이브의 컨소시엄 ‘스테이지엑스’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함께 이동통신 4사 시대를 연다. 정부가 2010년부터 여덟 차례 추진한 제4이통사 유치가 14년 만에 확정된 것이다. 하지만 과거 통신 3사가 수익성이 없다고 포기한 주파수를 두 배 이상 비싸게 파내자,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양자 대결 구도로 치러졌던 제4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 경매가 전날 스테이지파이브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 스테이지엑스의 최종 승리로 마무리됐다. 최종 낙찰가는 4301억 원이다. 당초 최저경쟁가격을 2018년 이통3사 때보다 3분의 1 수준인 742억 원으로 낮게 설정했지만, 양사가 50라운드를 채우고도 밀봉 입찰까지 베풀면서 최종 낙찰가는 시작가 대비 5배 이상 올랐다. 특히 2018년 2070억 원대였던 기존 통신 3사의 28㎐ 대역 주파수 낙찰가 대비로도 2배가 넘는 액수다. 이와 관련해 스테이지엑스 측은 높은 입찰가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단순 입찰가를 기준으로 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스테이지엑스

최저경쟁가 742억 시작했지만 50라운드 넘겨 ‘밀봉입찰’까지 5배 이상 오르며 4301억 낙찰망 구축 비용 최소 2000억 필요 최대 4000억 정책금융·세액 지원 가계통신비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

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자격 획득’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28GHz 주파수의 독점적 사용으로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기술, 그리고 부가가치를 반영한 미래가치를 고려해 경매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알뜰폰 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으로, 위성통신장비 업체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와 신한투자증권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현재 신한투자증권이 금융주관을 맡아 8000억 원가량의 투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사업자는 3년 안에 28㎐ 기지국 장비 6000대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장비 구매 비용과 구축비용을 합쳐 최소 200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는 현재 조달한 투자금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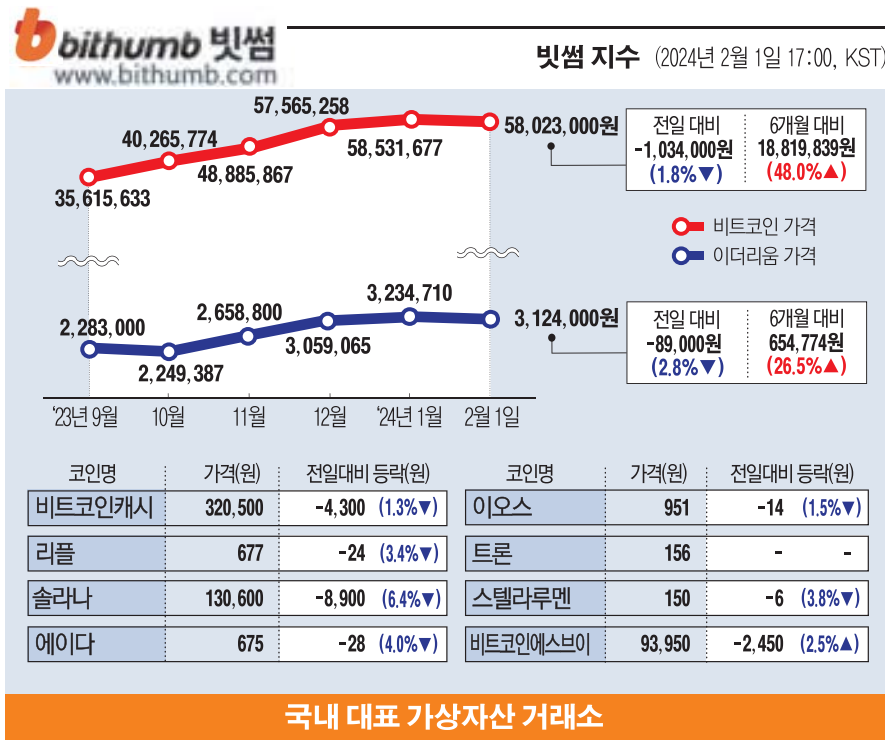
회사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는 기존 이통3사의 네트워크를 이용로밍을 통해 5G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동시에, 대학교·병원·경기장 등 핫스팟에 자체적으로 28㎐ 망을 구축해 기업 대상(B2B·기업 간 거래) 사업을 우선 전개하고, 향후 5G 28㎐ 스마트폰을 출시해 소비자용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2년 만에 통신 3사 체제가 깨졌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에 28㎐ 주파수를 손에 쥐게 된 스테이지엑스의 시장 안착을 위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이미 정부는 신규 사업자의 사업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대 4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과 세액 공제도 제공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또한, 통신 3사와 통신설비 공동활용, 상호접속료 인하 지원, 제조사와 스마트폰 수급 협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할당대가가 이통3사 때보다 월등히 높아져서 신규사업자가 이미 부담을 안고 출발하게 된 것 같다”면서 “정부 의도대로 통신3사 체제가 해소되고,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까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션에이지 ‘눈물의 구조조정’

전체 직원 10% 권고사직 진행 흥행 저조한 ‘마녀자판기’ 종료 조직 슬림화 통한 경영효율 노력 신작 ‘갯레이드’로 글로벌 공략

장기 부진을 겪고 있는 게임사 션에이지가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번에 추진된 구조조정은 부진한 실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풀이된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션에이지는 최근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권고사직을 단행했다. 대상은 전체 직원(약 100여명)의 10% 안팎이다. 션에이지 관계자는 “자진 희망자에 한해서 권고사직을 진행했다”며 “규모는 전체 인력의 10%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인 매출 하락과 시장 상황 저조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인부 인원 감축이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진한 게임업계 업황과 연이은 실적 부진으로 인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군살빼기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대상은 출시한지 3년 이 넘어선 데카론M을 비롯한 MMORPG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조직 일부다. 모바일 MMORPG 게임 데카론M 출시 및 안정화 작업을 위해 과다 편성됐던 인력을 축소할 것이다. 션에이지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게임의 서비스도 종료하며 경영 효율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출시한 모바일 RPG 마녀자판기는 흥행이 저조하자 지난달 29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네시삼십삼분의 개발자회사인 션에이지는 2014년 출시한 ‘영웅 for kakao’가 흥행에 성공하며 출시 1년 만에 누적 매출 6000억 원을 돌파하며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하지만 기존작의 실적 감소와 더불어 신작 부재 여파로 부진의 늪에 빠졌다. 2016년 15억 원대였던 영업이익자 규모는 2017년(89억 원)과 2018년(264억 원) 2019년(132억 원), 2020년(119억 원), 2021년(21억 원) 2022년(164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3분기까지 영업손실이 94억 원에 달한다. 이에 션에이지는 신작 흥행이 절실한 상황이다. 션에이지는 이날 출시한 팀배틀 RPG ‘갯레이드’로 글로벌 공략에 나선다. 김나리 기자 nari34@



‘회사채 흥행’ 롯데·‘공매 유찰’ 신세계…엇갈린 두 건설사

태영건설 워크아웃 이후 재무 상태가 불안한 건설사로 거론된 롯데건설과 신세계건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롯데건설은 회사채 수요예측이 흥행하며 목표액 이상을 확보한 반면, 신세계건설은 대구 사업장 미분양 물량이 공매(공개매각)에서 전량 유찰되며 유동성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전날 회사채 1년물 2000억 원 규모 공모 회사채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을 진행한 결과, 총 3440억 원의 주문을 받아내며 목표 수요를 초과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회사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채무 상환에 활용될 예정으로, 향후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흥행의 배경에는 롯데건설의 자금 노력과 더불어, 최근 건설채 시장의 연이은

롯데 회사채 2000억 수요예측

3440억 주문 받아 목표 초과

건설채 흥행 속 자금노력 성과

흥행 흐름이 자리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초기보다 건설채에 대한 불안이 잦아들면서 건설사들의 자금 확보에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회사채를 발행한 현대건설의 수요예측에는 목표액 1600억 원의 4배가 넘는 6850억 원의 수요가 몰렸다. 같은 달 24일 수요예측을 진행한 SK에코플랜트도 1300억 원 모집에 5배 가량인 70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으며 흥행했다. 두 건설사 모두 오버부킹에 성공하면서 당초 신고금액보다 2배 수준으로 증액 발행했다.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시장이 제2의 태영건설을 찾는데 분주한 모습이지만, 건설사들의 유동성 확보 노력이 시작돼 당분간 주요 건설사에서 태영건설급 이벤트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반면 신세계건설은 전날 시공한 대구 빌리브헤리티지의 미분양 물량 121가구가 1, 2차 공매(공개매각)에서 전량 유찰됐다. 이에 따라 미분양 물량 공사대금 회수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0년 말 대구 수성구 일원에 분양된 빌리브헤리티지는 최초 분양 당시 전체 146가구 중 25가구만 계약됐다. 나머지 121가구는 준공 후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 결국 지난해 11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만기를 연장하지 못하고 대주단 주판사가 교보자산신탁에 공매를 요청했다.

신세계 대구 미분양 121가구

1·2차 공개매각서 전량 유찰

대금회수 차질…유동성 적신호

신세계건설은 빌리브헤리티지 시공권을 609억 원에 확보했지만, 미분양으로 약 436억 원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공매는 최대 5차례 진행되는 데 회차가 지날수록 가격이 낮아지고, 그만큼 회수하는 자금도 줄어들게 된다. 신세계건설의 채권 순위는 4순위로, 공사비를 받는 시점도 늦어지기 어렵다.

앞서 증권업계는 신세계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가 50% 이상인 점을 지적하며 향후 단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단기 차입금 만기가 대부분 3개월 내에 몰려 있고, 순차입금 규

모도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신세계건설은 금융기관과 그룹 계열사의 지원, 흡수합병 등을 통해 26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했지만,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이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선 미분양 물량 소진이 급선무인데 주택 시장 침체로 해소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미분양 적체가 심한 대구 지역 사업장 비중이 높은 점이 어려움을 키운다.

신세계건설 관계자는 “최근 2650억 원 규모의 자금 마련을 비롯해 상반기 만기 도래 예정인 약 2000억 원 규모의 보증채무 이상의 유동성을 사전 확보했다”며 “그룹 차원에서도 신세계건설의 재무 구조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유동성 흐름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다각적인 지원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국토부, ‘지하주차장 붕괴’ 영업정지 8개월 확정

GS건설 “책임 통감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

GS건설이 인천 검단 아파트 사고 관련 행정처분 문제를 법정으로 가져가기로 했다. 징계수위가 과도한 데다 1년 가까이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면 중장기적 타격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영업정지 기간은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 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 GS건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조정사업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다.

서울시도 전날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서울시 처분 포함 최대 10개월

“영업활동 못하면 중장기 타격

품질·안전 고강도 쇄신 할 것”

처분을 내렸다.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과 관련해 3월 청문을 진행한 후 추가로 행정처분을 내릴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것까지 포함되면 GS건설은 10개월간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GS건설은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관한 입장문을 내고 법정행위를 예고했다. GS건설은 “지난해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은 이후 12월 각각 청문 절차를 거쳤고 올해 1월 청문에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등 시공사로서 할 수 있는 소명을 다했다”며 “그런데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GS건설의 법적 대응은 어느 정도 예

견됐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에서도.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거나 오더라도 길어야 6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했다. 검단에서 사망자가 없었고 GS건설이 전면 재시공 등 적극적인 수습 의지를 보였다든 점 등이 근거다.

사실상 1년간의 개점휴업으로 발생할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도 법정행위를 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GS건설의 월평균 신규수주액을 고려할 때 10개월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10조 원 안팎의 수주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져본 신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고, 소송을 통해 영업정지 기간이 줄면 받을 타격은 줄어들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품질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고강도 쇄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반포~한강지구 연결 ‘뿔개 공원’ 만든다

올림픽대로 위 1만㎡에 문화공간

반포주공1 재건축 기부채납으로

6월 설계안 확정…2027년 준공

서울 서초구 반포본동에서 반포한강공원까지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위 1만㎡의 공중공원이 2027년 들어선다. 주거지와 한강을 직접 연결하는 서울 시내 첫 뿔개 공원이다.

서울시는 반포주공1단지(1·2·4주공) 재건축 부지에 ‘반포지구 한강 연결공원 및 문화시설’을 조성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국제설계 공모 공고(안)을 내놓고, 이달 13일에는 공모 설명회를 개최해 심사를 거쳐 올해 6월 최종 설계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반포지구 한강 연결공원’은 신반포로~반포한강지구를 연결하는 보행로이자 공원을 짓는 사업이다. 반포주공1 재건축 공공기여(기부채납)로 조성되며, 단지와 인근 소공원을 포함해 약 5만3362㎡, 이 중 1만㎡에 뿔개 공원과 문화시설(전시장 3300㎡)이 함께 조성된다. 총 사업비는 1136억2200만 원이다.

서울시는 도시고속화도로인 ‘올림픽대로’가 가로막고 있어 나들목·연결육교 등으로만 이동할 수 있었던 한강공원을 걸어서 찾아갈 수 있도록 입체적인 뿔개공원을 조성해 한강 접근성과 지역 간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들어설 공중공원 설계공모 조감도 예시. 사진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도시 고속화 도로 상부에 들어서면 최초의 뿔개 공원이자 강남 개발의 시초가 된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로서 대상지가 갖는 의미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이날부터 국제설계를 직접 공모,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설계를 유도할 방침이다.

설계제안서를 심사할 위원장은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가 맡았다. 아울러 시애틀을 올림픽 조각공원을 설계한 마이클 만프레디를 비롯해 심사위원 7명과 예비 심사위원 3명이 선정됐다.

임창수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서울에 처음 조성되는 뿔개 공원인 ‘반포지구 한강연결공원’을 통해 한강을 시민의 삶 더 가까이 끌어들이어 줄 수 있게 됐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원 디자인으로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국제설계 공모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진리 기자 truth@

“3월 청약홈 개편·4월 총선 피하자”

이달 분양물량 ‘월 기준 역대 최다’

전국 36개 단지 3만645가구

이달 분양시장에 2월 기준 역대 최다인 3만 가구 이상이 나올 전망이다. 3월 청약홈 개편과 4월 총선 등이 예정돼 건설사들이 그 전에 물량을 쏟아낼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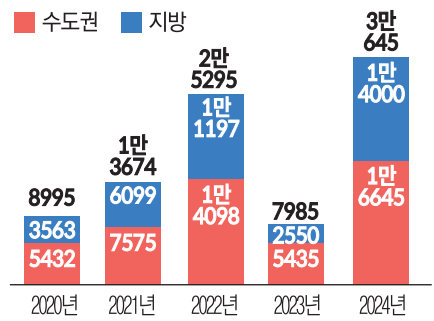
1일 부동산R114는 이달 전국에서 36개 단지, 총 3만645가구가 분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수도권은 1만6645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만7255가구보다는 적지만 전년 동기(5435가구)와 비교하면 3배 늘어난 수치다. 경기도는 가장 많은 8700가구가 예정됐다. 서울은 강남

4구를 중심으로 4485가구가 나온다. 인천은 신도시에 3460가구가 분양한다. 지방은 총 1만4000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광주(4045가구)가 가장 많고 이어 충북(2330가구), 전북(1914가구) 순이다.

주요 분양 예정 단지로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꼽힌다. 메이플자이는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 동, 총 330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전용면적 43~59㎡ 162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경기에서는 수원시 이목동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더리체’가 인천에서는 연수구 송도동 ‘송도자이풍경채그라노블’이 주

아파트 분양 및 분양예정 물량
(단위: %, 2월 기준) * 출처: 부동산R114



요 단지로 거론된다.

김지연 부동산R114 연구원은 “청약홈 개편, 총선 등 봄 성수기와 맞물린 대형 이벤트로 건설사의 분양일정이 불가피해졌다”며 “시장 위축에 따른 공급 속도 조절이 계속되는 가운데 자금력이 있는 대형 건설사 브랜드 단지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단지 위주로 솔림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

전국 아파트값 10주 연속 내림세…전셋값도 상승세 멈춰

전국 아파트값 내림세가 10주 연속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값도 9주 연속 내렸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도 보합(0.0%) 전환됐다. 다만, 수도권 전셋값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1일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 하락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0.05%보다 0.01%포인트(p) 추가 하락한 수준이다.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주보다 0.02%p 내린 -0.05%를 기록하면서 재차 내림 폭 확대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 내 지역별로 는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를 포함

해 모든 자치구에서 내림세를 기록했다. 이번 주 서초구는 -0.07%, 송파구는 -0.04%로 집계됐다. 강남구는 지난주보다 더 하락해 -0.03%로 나타났다. 강동구는 -0.05%로 집계됐다.

전국 전셋값은 상승세를 멈추고 이번 주 보합 전환됐다. 이번 주 전국 전셋값은 지난주보다 0.02%p 내렸다. 서울은 전주 대비 0.01%p 하락한 0.06%로 조사됐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은 매매 시장 관망세로 전세수요가 꾸준하고, 신규 매물이 감소하면서 주거 환경이 좋은 선호단지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시중銀 ELS중단, 여전사에 불뚱튀나… 대출금리 오를 수도

증권사 ELS 발행규모 34조

국내 시중은행들이 고위험파생금융상품인 주가연계증권(ELS) 판매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카드사와 캐피탈사에 예상치 못한 불뚱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권사들이 ELS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의 상당액을 여신전문금융회사채권(여전채)에 투자하고 있어 ELS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면 채권시장으로 그 여파가 번질 수 있어서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ELS를 포함한 파생결합증권 발행 자금은 약 96조 원이다. ELS 발행 규모가 34조 원 정도로 주가연계채권(ELB), 파생결합채권(DLB), 파생결합증권(DLS) 중 가장 많다. 증권사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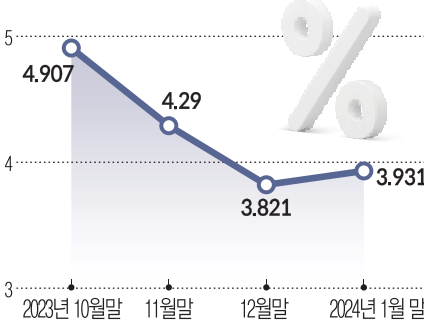
조달자금 상당액 여전채 투자

ELS시장 위축땐 채권시장 여파
여전채 금리 3개월만에 상승 우려
올 만기 카드채도 27조원 육박
일각 “판매중단 당장 부담없어”

이를 판매하고 모은 돈으로 카드사와 캐피탈사의채권을 사들였는데 이 중 6조 원이 여전채에 투자되고 있다. 여전채는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증권사들이 선호하는 자산이다. 발행 물량이 많아 유동성이 좋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문제는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급락으로 이와 연계된 ELS에서 대규모

여전채 금리 (단위: 연 %) ※ 출처: 금융투자협회



손실이 발생하면서 은행들이 잇따라 ELS를 판매 창구에서 빼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내 5대 은행 중 KB국민·신한·하나·NH농협 등 4곳이 ELS 관련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홍콩 ELS 판매 잔액은 19조 3000억 원이며 15조 9000억 원이 은행 판매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손실 규모만 5

조~6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은행권에서 ELS 판매를 중단하면서 수조원의 여전채 수요 기반도 사라질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카드사들은 영업자금의 65% 이상을 여전채 발행을 통해 마련하는 만큼 시중은행의 ELS 판매 중단이 여전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3개월간 여전채 금리는 하락 추세다. 지난해 말 여전채 금리가 연 3%대로 내려앉은 등 하향 안정세를 보이며 카드사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ELS 판매 중단에 따라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또다시 현금서비스와 카드론 등 대출 상품의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올해 만기 도래하는 카드채도 27조 원에 육박하는 등 카드사의 이자비용 부담

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전채 수요 위축으로 카드사의 자금 조달은 더욱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신업계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 악화로 인한 대손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자금 조달에 집중하고 있다”며 “ELS 판매 중단과 증권사 리스크로 여전채 수요가 줄어들어 자금 조달 환경 악화 등 카드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각에선 ELS 판매 중단으로 인한 여전채 시장 위축이 당장 부담은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해 기준 채권 헤지 자산 중 여전채 비중은 6.1%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전채 시장 규모가 83조 원에 달해 ELS 시장 위축이 여전채 수급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다.

정성원 기자 jsw@



김주현(오른쪽 두 번째)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구로구 IBK창공 구로를 방문한 현장에서 김성태(왼쪽 두 번째) 기업은행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

김주현 “IBK벤처투자, 창업기업 초기투자 주도 기대”

IBK창공, 작년까지 1조 유치 지원

김성태 기업은행장 “해외진출 강화”

“현재 벤처·스타트업 투자시장에서 초기 단계의 투자가 부족한 상황인데, IBK가 1분기 중 설립 예정인 벤처자회사(IBK벤처투자)를 통해 초기 투자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구로구 IBK창공 구로에서 열린 기업 간담회에서 6개의 IBK창공 기업 대표를 만나 이같이 밝혔다.

IBK창공은 ‘창공(創工)’을 통해 창공

(蒼空)으로 비상하라’는 의미를 가진 ‘창업 공장’의 줄임말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IBK기업은행의 창업육성플랫폼이다. 2017년 12월 IBK창공 마포 개소 이후 6개의 창업 공간(마포, 구로, 부산, 서울대 캠프, 대전, 유니스트 캠프)을 통해 혁신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IBK창공은 개소 이래 작년 말까지 총 707개의 창업기업을 발굴해 3092억원의 대출과 1조 1494억 원의 투자유치를 지원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에서 혁신적인 창업기업이 우리 경제와 젊은 세대의 미래

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IBK는 창업 단계에서의 지원을 넘어 창업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죽음의 계곡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 사각지대를 메워 위축된 벤처생태계를 보완하고 기존 지원체계를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올해 벤처·스타트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전년 대비 30% 이상 확대해 1조 원 이상 공급 △광주와 대구에 IBK창공의 신규 개소 추진 △IBK창공 유럽데스크를 설치해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재영 기자 lry0403@

5대 은행 주담대 한달새 4.4조 ‘쑥’

1월 가계대출 잔액 9개월 연속 증가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지난 한 달 새 4조 원 이상 늘어났다. 가계대출은 9개월 연속 증가했다.

1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1월 말 기준 534조 3251억 원으로 전월(529조 8922억 원)보다 4조 4329억 원 늘었다. 지난해 월별 주담대 최대 증가 규모였던 11월 4조 9958억 원보다 단축되지만, 12월 3조 6699억 원보다는 증가폭이 확대됐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계속됐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잔액은 695조 3143억 원으로 전

월(692조 4094억 원)보다 2조 9049억 원 뛰었다. 지난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은 △10월 3조 6825억 원 △11월 4조 3737억 원으로 연중 최대치를 기록하다 △12월 2조 238억 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바 있다.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 잔액은 모두 감소했다.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20조 7411억 원으로 한 달 전(121조 605억 원)보다 3194억 원 줄었다. 신용대출 잔액은 1월 말 기준 105조 4611억 원으로 전월(106조 4851억 원)보다 1조 240억 원 감소했다.

기업대출은 770조 1450억 원으로 전월(767조 3139억 원)보다 2조 8311억 원 늘

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대출 잔액이 136조 4284억 원에서 138조 9484억 원으로 한 달 새 2조 5200억 원 증가했다.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30조 8855억 원에서 631조 1966억 원으로 3111억 원 늘었다.

5대 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증가했다. 총수신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1961조 344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1951조 3753억 원에서 9조 6591억 원 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해 12월 말 849조 2957억 원에서 862조 6185억 원으로 13조 3228억 원 늘었다. 같은 기간 정기적금은 45조 8632억 원에서 46조 4876억 원으로 6244억 원 증가했다. 반면 요구불예금은 같은 기간 616조 7480억 원에서 590조 7120억 원으로 26조 360억 원 감소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

시중銀, 역대급 실적에도 성과급 줄였는데…

보험사는 ‘성과급 잔치’

삼성화재 연봉 50%·생명 29%

금감원 압박에도 최대 규모 지급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보험사들이 최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역대급 호실적에도 ‘상생 금융’ 압박과 ‘돈잔치’ 비판에 성과급 규모를 전년보다 줄인 것과는 다른 행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전날 직원들에게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 지난해 연봉의 47%가 지급된 것을 고려하면 소폭 확대된 규모다. 연봉의 50%는 삼성화재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성과급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지난해 적정 손해를 관리하고 사고 감소 등 손익이 개선됐다”며 “성과 보상 차원에서 임직원에게 초과 이익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은 연봉의 29% 수준에서 성과급이 책정됐다. 역시 작년에 지급된 연봉 23% 수준의 성과급보다 늘었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화재·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들도 ‘역대급’

주요 보험사 성과급 (단위 : %)

	2023년	2024년
삼성화재	연봉의 47	연봉의 50
삼성생명	연봉의 23	연봉의 29
메리츠화재	연봉의 60	연봉의 60 내외 (미정)
DB손해보험	연봉의 41	연봉의 30~41 (미정)
현대해상	연봉의 30	연봉의 300내 (미정)

성과급을 지급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지난해 보험업계에 새 회계제도(IFRS17)가 적용되면서 회계상 이익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53개 보험사는 지난해 3분기까지 11조 4225억 원의 누적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2%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이달 중순 보험사 최고재무책임자(CFO)들을 모아 IFRS17 도입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큰 만큼 올해 성과급과 배당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한편, 5대 시중은행의 성과급 규모는 지난해 평균 300%를 웃돌았던 것과 달리 200%대로 대폭 축소했다. 임금상승률도 일반직 기준 2.0%로 결정됐다. 지난해 3.0%에서 1.0%포인트(p) 낮아졌다. 서지연 기자 sjy@

취약계층 밀린 통신비도 지원한다

2분기 ‘금융·통신 채무조정’ 추진

정부가 밀린 통신비를 갚으려 고금리 대출을 받거나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연체된 통신비도 금융채무와 함께 조정하기로 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통신채무와 금융채무의 동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채무를 일괄 조정하기로 했다. 채

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 채무자가 성실히 상환하고 재가할 수 있도록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조정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은 올해 2분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통합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현재 통신업계와 신복위는 가입 여부, 기타 세부사항 등을 협의하는 단계에 있다. 1분기 중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협약 가입을 추진한다. 유하영 기자 haha@

올 M&A 시장 대기업이 주도… 사모펀드는 양강구도 지속

작년 9월 사모펀드 전체 약정액
전년 6월대비 3.2% 오른 139兆

M&A 부실기업 대규모 유입 속
삼성·LG전자 등 큰손 등판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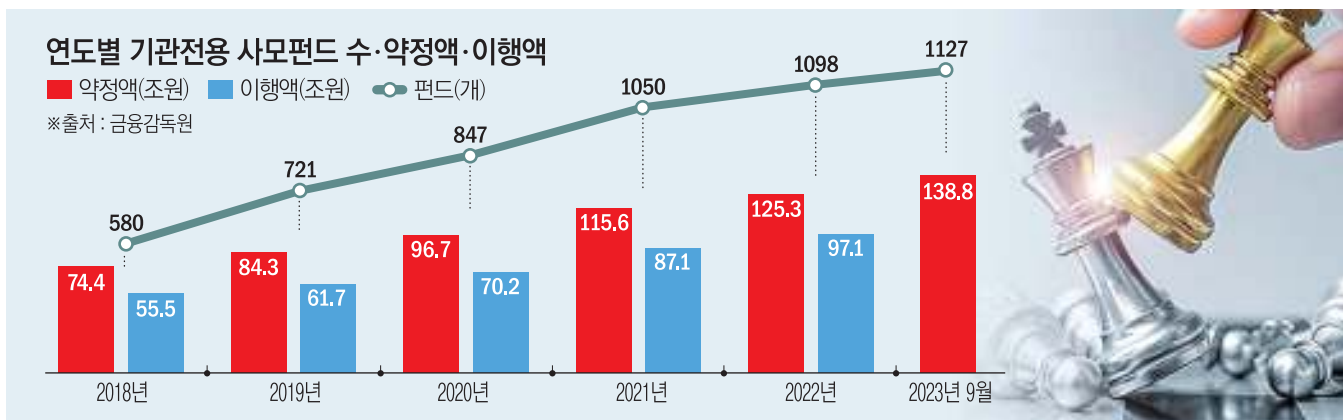
PEF는 출자구조 유지 가능성 커
하위권 운용사 참여 규모 줄 듯

“사모펀드(PEF)가 최근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경기 침체 영향이 크다. 삼성, LG, SK외에 다른 기업은 인수합병(M&A)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매물을 팔 만한 곳이 마땅찮다. 일부 PEF는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 회수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불투명하다.”(M&A시장 고위 관계자)

M&A시장이 ‘빅딜’ 기회를 노리는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PEF는 치열한 생존 경쟁속에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의 독주가 예상된다.

◇삼성·SK·LG등 큰손 등판예고=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올해 구조조정발 부실기업이 M&A 시장에 쏟아질 전망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해 국내비금융외부감사대상 법인기업 3만1908곳의 최근 3년간 회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외부 자금 조달 규모는 2020년 913조7000억 원에서 2022년 1163조 4000억 원으로 27.3% 증가했다. 이 중 단기차입금의 비중이 같은 기간 35.5%에서 39.0%로 크게 뛰었다.

부실 기업도 급증했다. 한경협이 또다 른 분석을 보면, 지난해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비금융 기업(외감기업) 3만 6425개사 중 4255개사(11.7%)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부실기업)에 놓인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2022년 실제 부실기업 수(3856개사)보다 10.3% 늘어난 규모이며, 최근 5년 새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주인을 기다리는 매물도 쌓였다. SK해운(예상 매가 3조5000억 원), 지오영(2조 원), 롯데손해보험(2조 원), 프리드라이프(1조 원), 제뉴원사이언스(1조 원), 비즈니스온(3000억 원) 등 PEF발

M&A매물도 시장에 나올 전망이다. KDB생명을 비롯해 ABL생명, MG손해보험 등도 주인을 찾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악한 고리’로 꼽히는 저축은행의 M&A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M&A시장에 큰손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희삼성전자대표이사부회장은 지난달 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4’ 현장에서 “올해 삼성의 리더십을 위한 대형 M&A 계획이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고 했다.

LG전자는 M&A등 외부동력을 찾고 있다. 조주완 LG전자 사장도 CES에서 “구체적인 대상 기업을 언급할 수는 없지만 기업간거래(B2B) 영역, 신규사업영역이 될 것 같다”며 “다양한 방식의 인수가 있지만, 올해는 1~2개 정도는 시장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곤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는 “구조조정 차원의 딜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지난해도 상당부분 진행됐지만 LG디스플레이의 사업 재편 딜과 SK스퀘어 산하 자회사 관련 딜들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삼일 PwCM&A 센터장도 “대기업의 경우 경기침체 장기화 등 악화된 시장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인 사업구조 개편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PEF는 생존경쟁, MBK·한앤코 독주 예고=PEF시장에서는 MBK파트너스와 한앤컴퍼니의 독주가 예상된다. 기관투자자들(LP)의 출자 구조는 이번에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큰 데다 하위권 운용사들이 파낼 수 있는 규모는 전반적으로 줄어들 거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 9월 추가된 ‘엠비케이파트너스 스페셜시투에이션 2호 펀드’는 지금까지

한국·중국·일본 등 총 7곳에 투자했다.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국내에선 SK온에 4000억 원이 투입됐고, 메가존클라우드에는 2500억 원 규모로 투자가 이뤄졌다. 국내에서 집계된 스페셜시투에이션 2호 펀드자금은 이 중 지난해 9월 기준 약 1조5000억 원의 자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IMM프라이빗에쿼티(IMM PE)는 최근 탱크터미널 운영업체 유나이티드터미널코리아(UTK) 인수에 나섰고, 스카이라이크에쿼티파트너스의 10호 블라인드 펀드가 만기 1년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EF 업계 관계자는 “연기금들이 출자해서 받는 곳은 매년 똑같았고 라지캡이 비슷할 것이나 프로젝트 펀드로 투자하는 중견이나 소형사들이 얼마나 하느냐가 관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관건은 3월말부터 출자사업 공고가 시작돼 6월에 최종 결정되는 국민연금 PEF 출자다. 지난해는 한앤컴퍼니, 맥쿼리자산운용, IMM PE 3곳의 운용사가 총 8000억 원을 얻었다.

이번엔 MBK파트너스도 10조 원 이상 규모로 준비 중인 6호 펀드를 위해 국민연금 출자 콘테스트에 참여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MBK는 최근 4조 원 규모의 6호 블라인드 펀드 1차 클로징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박상민 기자 si2020@

은행 예금 담은 첫 ETF… 미래에셋운용, 6일 상장한다

유가증권시장에 2300억규모 상장
“예금 등 현금성 상품 대체 기대”

“상장지수펀드(ETF)지만, 최초의 상장된 예금이다.”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 부문 대표는 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미래에셋센터원에서 열린 TIGER 1년 은행양도성예금증서(CD)액티브 ETF 출시 기념 기자회견회에서 해당 ETF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6일 2300억 원 규모의 이ETF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이 상품은 매일 고시되는 CD 1년물 금리를 추종한다. 금리 변동성이 심한 금융시장에서 돈을 잠시 맡겨두는 ‘파킹’ 목적의 금리형 ETF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CD금리 91일물이나 1년물 수익률을 추구하는 건 이 상품이 처음이다.

김대표는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ETF는 해지 절차를 밟지 않아도 시장에서 다른 투자자에게 소유권만 넘기면 거래되기 때문에 중도환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1년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중도환매 수수료

없이 하루만 맡겨도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상품”이라고 평가했다.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현재 국내 상장된 금리형 ETF 중 가장 높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CD 1년물 금리는 이날 기준 3.65%로, 과거 3년간 CD 91일물 금리보다 평균 0.28%포인트(p) 높다. 같은 기간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에 비해서는 평균 0.48%p 높다.

김남호 미래에셋자산운용 FICC ETF운용본부 본부장은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는 기존 금리형 ETF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

다”며 “1년 CD 1년물 금리의 하루 치 이자가 매일 복리로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루만 투자해도 1년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ETF가 은행정기예금과 파킹통장 등 기존 현금성 상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본부장은 “은행 1년 예금 상품은 일반적으로 만기 전 중도 해약 시 약정이율의 일부만 지급하는 특징을 고려하면 환금성이 뛰어난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 ETF가 훌륭한 대체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손민지 기자 handmin@



김남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 운용부문 부사장이 ‘TIGER 1년은행양도성예금증서액티브(합성) ETF’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제공 미래에셋자산운용

저PBR·배당 기대… 주춤했던 대기업·금융지주사 용틀임

좀처럼 오르지 않아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던 대기업 및 금융 지주회사들의 주가가 최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상장사의 기업가치를 제고하도록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기로 하면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상장사의 주요 투자지표를 공시하고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공표하도록 권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계획이다.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 회사들의 사업 활동을 지배하는 회사인 지주회사는 그동안 만성적인 저평가에 시달렸다.

증권사가 기업의 목표 주가를 계산할

삼성물산, 전 거래일비 7.75% 쉼
LG·SK·CJ 등도 7%대 상승 기록
하나금융 52주 신고가 경신 릴레이

때 지주회사의 경우엔 순자산가치(NAV·기업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것)의 40~50% 정도를 깎을 정도였다.

1일 삼성그룹의 실질적 지주사 삼성물산은 전 거래일보다 7.75% 상승해 14만 8700원에 마감했다. 삼성물산은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예고에 힘입어 주가가 오른 건 삼성물산만이 아니다. PBR이 1배 미만인면서도 주주환원을 위한 재원에 넉넉한 다른 대기업 지주사인 LG(7.44%)와 SK(7.36%), 롯데지주(7.57%) CJ(7.45%), 한화

(10.09%), LS(5.38%) GS(7.34%) 등도 이날 큰 폭으로 올랐다.

금융지주사들도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하나금융지주는 8.79% 오른 5만 2000원에 마감했다. 장 중 5만 22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KB금융(8.30%), 우리금융지주(3.82%), 메리츠금융지주(2.19%), BNK금융지주(4.52%), DGB금융지주(8.77%), JB금융지주(9.97%) 등도 줄줄이 오르면서 신고가를 찍었다.

최근 시장 참여자들은 앞차 저평가주 찾기에 나선 모습이다. 저평가 기준으로 여겨지는 PBR 1배 미만인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1115개로 전체(2410개)의 절반 수준인 46.26%에 달한다.

정희인 기자 hihello@

하나증권 “해외 고객 확대” 외국인투자솔루션팀 신설

등록번호 없이 증권사계좌 발급가능

하나증권은 외국인투자솔루션팀을 신설해 비거주외국인 고객 확대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외국인의 국내 투자 걸림돌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등록제 폐지로 사전 등록과 투자 등록 번호(외국인 ID) 발급 없이 외국법인은 LEI, 개인은 여권만으로 증권사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하나증권은 입·출금 환전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솔루션팀을 신설해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고객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비거주외국인 고객을 위한 투자 프로세스 개선과 외국인통합계좌시스템도 단계별로 구축 예정이며, 그룹 유관부서와 협업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조대현 하나증권 WM영업본부장은 “30년 넘게 유지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투자 또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개선에 맞춘 내부 프로세스,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비거주외국인 투자자들이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IBK기업은행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실력 있는

기업들이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가장 진화된 금융으로 기업을 앞으로

ESG, 기업승계, 경영 전반의 맞춤형 컨설팅

IBK 컨설팅

기업과 인재를 연결하는

i-ONE JOB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M&A 중개·주선 지원

M&A 생태계 조성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3946호(2023.08.29) 유효기간(2024.08.28)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직소싱은 매출 효자... 편의점업계 “너도나도 키워보자”

10~30대 소비자 ‘정조준’

편의점 유통채널이 해외에서 직접 수입하는 ‘직소싱 상품’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다. 편의점 본사는 수입상품의 유통과정을 줄여, 매입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점포는 해외 유명상품을 통해 젊은 소비층을 모객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다.

1일 편의점업계에 따르면 CU는 최근 해외 제조사에서 직접 ‘멸균우유’를 수입, 판매하고 있어 화제다. CU의 멸균우유는 낙농강국 폴란드에서 직수입한 일반우유(1L)와 저지방우유(1L)다. 특히 가격이 강점이다. 그동안 편의점에서 판매한 흰우유 대비 46% 저렴하다. 회사는 2017년 해외소싱 전담 조직인 글로벌트레이딩팀을 신설, 직소싱에 공을 들여왔다. CU의 직소싱 상품의 연도별 매출 신

CU, 해외서 직접 멸균우유 수입

GS25, 50개 품목·수입국 확대





이마트24, 직소싱 매출 213% ↑

세븐일레븐 해외 네트워크 활용

각사 앞으로도 적극적 행보 예고

장물을 보면 △2020년 12.6% △2021년 18.4% △2022년 20.6% △2023년 28.7% 등 매년 증가세다.

GS25는 올해 해외 직소싱 상품을 50개 이상 들여오는 한편, 수입국도 30여국이 상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해외여행 시 반드시 구매하는 현지 필수 상품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해외 직소싱 상품의 수요가 매년 늘

편의점 4사 대표 직소싱 상품 ※ 출처: 각사		
	CU	멸균 우유(폴란드), 카피티(뉴질랜드)
	GS25	훗카이도푸딩(일본), 감자칩 사워크림어니언(말레이시아)
	세븐일레븐	세븐 프리미엄 완두콩스틱(일본), 아오모리 사과 츄하이(대만)
	이마트24	구운땅콩볼(인도네시아), 책링크스 욕포(미국)

자, 기존보다 상품 구색을 확대, 고객의 발길을 잡겠다는 계산이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작년 11월 직소싱한 ‘훗카이도푸딩’은 출시 2개월 만에 누적 판매수량 10만 개를 돌파했다. 훗카이도푸딩은 일본 훗카이도 지역의 특산품이다.

세븐일레븐도 올해 글로벌상품소싱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고 공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특히 미국, 일본, 태국 등 전 세계

20개국에 있는 글로벌 세븐일레븐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런 전략에 맞춰 세븐일레븐은 ‘세븐 프리미엄 완두콩스틱’, ‘세븐 프리미엄 블랙페퍼크래커’를 신규 출시했다. 두 제품은 일본 현지에서 국민 맥주 안주로 인기만점이다. 이마트24도 해외 직소싱 상품 구색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뉴질

랜드, 미국 등에서 직소싱한 상품을 판매 중이다. 이마트24의 2023년 직소싱 상품 매출은 전년 대비 213% 증가했다.

편의점업계가 직소싱 상품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모객 효과와 수익성 확보 때문이다. 경쟁사에서 판매하지 않는 차별화상품으로, 편의점 핵심 소비층인 10~30대 젊은 층을 유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 단순해진 유통망으로 비용절감 효과가 크다. 해외상품 유통과정을 단순화할 경우 기존 대비 가격이 10~40% 저렴해진다는 게 편의점업계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상품을 수입하려면 해외 제조사·수출전문회사·국내 수입원·유통전문판매원·편의점 등 여러과정을 거쳐야하지만, 자사가 직접 발굴해 가져오는 직소싱은 해외제조사에서 편의점으로 이어져 가격절감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유승호 기자 peter@



세븐일레븐, 밸런타인데이 캐릭터 상품 총출동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캐릭터 ‘뽕뽕이’를 비롯해 ‘양파콩야’, ‘디즈니 캐릭터’ 등 캐릭터들을 활용, 총 130여종의 기획 상품을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 ‘다꾸(다이어리 꾸미기)’ 열풍을 이을 패션 트렌드 ‘백꾸(가방 꾸미기)’-폰꾸(스마트폰 꾸미기)’ 쪽을 겨냥한 핵심 전략 상품이다. 대표 상품은 △뽕뽕이보글이메신저백 △뽕뽕이얼굴가방세트 등이다. ‘양리마티스 뽕뽕이(카티아나디아)’ 와인 2종도 한정판 출시한다. ‘양파콩야스티커세트’도 선보인다.

사진제공 세븐일레븐

공정위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본사)의 가맹점사업주(가맹점주)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아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 착취에 대해 면밀히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에는 직권조사까지 예고했다. 공정위 사건 조사는 신고와 직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통상 직권조사는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는 bhc와 버거킹이 대표적이다. 두 업체 모두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점 갑질 논란이 제기됐다. MBK파트너스가 소유한 bhc의 경우 2022년 7월 치킨 가맹점의 필수품목인 해바라기유 공급가를 한번에 61%나 올리면서 점주들과 갈등을 빚

bhc 해바라기유 가격 올리기 등 가맹점 갑질·수수료 문제 수면위 맘스터치 과징금... 업계 초긴장

었다. 또 bhc는 지난해 국감에서 점주가 부담하는 2020년 평균 차액 가맹금지급비율이 다른 주요 치킨 업체보다 높아 지적을 받았다. bhc의 지급비율은 18%로, 경쟁 3사의 두배다.

사모펀드 어파니티에쿼티파트너스가 소유한 버거킹 또한 작년 국감에서 가맹점 갑질과 수수료 문제가 불거졌다. ‘글로벌 버거킹’은 미국에서 로열티와 광고비를 합쳐 점주로부터 8.5% 수수료를 가져가는 반면, ‘한국 버거킹’만 물류 마진과 배송비를 합쳐 17.8%의 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톡선물하기(카톡선물) 프로모션도 가맹점을 등한시한 사례다. 카톡선물과 외파를 5400원에 팔면, 가맹점은 1개당 279원 적자라는 지적이 나왔다.

투썸도 사모펀드에 팔리면서 가맹점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CJ푸드빌 소유였던 투썸은 2019년 앵커에터티

스에서 2021년 칼라일그룹으로 사모펀드 주인만 두 번 바뀌었다. 투썸가맹점대표자협의회(협의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가협)는 작년 9월 본사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본사가 물류비를 과도하게 점주에게 전가하고 시중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원부자재를 강제 구매토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단기간 수익창출을 위해 가맹점주에 각종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에 점주가 본사에 주문해야 하는 필수품목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판촉행사 진행 시 점주동의 받았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가 직권조사 칼을 빼들자, 업계는 가맹점 달래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표적으로 bhc는 최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를 설립해 상생 강화에 나섰다. 이 협의회는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하는 내부기구다. bhc는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인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를 선임했다.

김지영 기자 kij42@

대형마트 ‘내수 살리기’ 초저가 전쟁

이마트 1월 이어 2월 할인정책 계속

롯데마트 ‘이번주 핫 프라이스’ 맞수

얼어붙은 내수 소비를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가 연초부터 초저가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마트가 1월 초저가 정책을 펼치자, 롯데마트도 유사한 가격 정책을 내놓으며 응수했다. 지난해 유통업계 중 대형마트만 나홀로 부진하자 내놓은 카드다.

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이달부터 ‘이번주 핫 프라이스’를 시행한다. 구매빈도가 높은 식품과 생필품 중 하나의 품목을 선정해 초저가로 판매하며, 상품 선정 주기는 주단위다. 소비 취향 다변화에 맞춘 빠른 대응 전략이다. 롯데마트는 이번주 핫 프라이스로 쌀을 선정했다. 4일까지 전 점포에서 ‘정갈한 쌀(10kg)’을 평균 소매가 대비 30% 낮춰, 1만9900원에 판매한다.

이보다 앞서 이마트는 1월에 이어 2월에도 ‘가격파격’ 정책을 이어간다. 매월 식품 3대 핵심상품과 가공식품·일상용품 40개 상품을 선정, 한 달 내내 최저가로 판다. 이달달 29일까지 소불고기, 양파,

냉동만두를 각각 정가가 대비 41%, 29%, 31% 할인 판매한다. 삼겹살도 이달까지 전월 대비 5.6% 낮춰 1680원(100g)에 판다.

대형마트의 잇단 가격파고는 지난해 얼어붙은 내수 소비로 인해 대형마트 매출 성장세만 유독 부진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23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비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 전년 대비 3.2% 감소한 이후 2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체 연간 매출동향을 보면, 지난해 대형마트 매출은 전년 대비 0.5% 신장에 그쳤다. 백화점(2.2%), 편의점(8.1%), 준대규모점포(3.7%) 등 타 오프라인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다.

업계는 초저가정책이 대형마트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마트는 가격파격 시행 후 지난달 5일부터 29일까지 삼겹살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대파, 호빵도 각각 81%, 200% 증가했다. 가공식품·일상용품 40대 상품 매출도 29% 늘었다.

유승호 기자 peter@

쿠팡 ‘착한상점’ 입점 중소상공인, 누적 매출 1兆 ‘로켓성장’

매년 성장... 지역 경제 활성화 앞장

쿠팡이 ‘착한상점’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의 누적 매출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1일 밝혔다. 2022년 8월 착한상점을 론칭한 지 2년 만이다.

착한상점은 쿠팡이 전국 중소상공인 및 농수축산인들의 디지털 판로 개척을 위해 선보인 상설기획관이다. 쿠팡은 전국 중소상공인들의 우수한 상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쿠팡 앱 메인 화면에 착한상점 메뉴를 배치하고 홍보와 마케팅 활동을 지원해왔다.

착한상점에 참여한 중소상공인들은 쿠팡의 다양한 지원책이 가시적인 성장을 견인했다는 반응이다. 경기 군포 소재 화

장품 업체인 라라추는 쿠팡 착한상점에 참여해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아 2022년 입점하자마자 전년 대비 402%의 매출 성장 효과를 얻었다. 마포농수산물시장에서 ‘옹이네건어물’ 브랜드를 운영하는 호남건어물도 쿠팡에 입점한 이후 만 1년만에 한치 등 상품이 인기를 끌며 현재 온·오프라인 통틀어 월 매출만 약 6000만원에 달한다.

쿠팡은 경북, 경남, 전북, 충북, 제주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발굴해 착한상점 내 별도 기획전을 열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앞장섰다. 경남 하동 소재 농업회사법인 ‘자연향기’는 쿠팡을 계기로 온라인에 본격 진출, 2023년 9월 착한상점 내 내경남 수산

식품 기획전 참여를 계기로 온라인 매출이 크게 성장했다.

착한상점에 참여한 입점업체의 2022년 매출은 전년 대비 약 40% 오르는 등 매년 성장세다. 착한상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업,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동결하면 재정난 심화” 지방대, 등록금 올린다

경성대·영산대 등 5% 안팎 ↑
인상 땀 정부 장학금 배제에도
“경영 한계 봉착… 인상 불가피”
총선 이후 논의 더 활발해질 것

고물가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대학 재정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일부 대학들은 4월 총선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등록금 동결이 해소될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성대는 교직원 임금 지급 등 학교 정상 운영 등을 위해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해 학부 등록금을 5.64% 인상하는 방안을 통과시키고 총장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영산대도 등록금을 동결할 경우 사립대 재정 진단에서 경영위기대학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 최근 등심위에서 올해 등록금을 5.15%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가결했다. 계명대와 광주 조선대는 4.9% 인상을, 원주 경동대도 3.75% 인상을 결정했다.

등록금은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반값 등록금’ 운동이 벌어지자 정부는 2010년 고등교육법을 정비해 대학들이 최근 3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5.64%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 대학에 국가장학금 II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동결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지방대가 등록금 인상 시동을 걸고 있다. 등록금을 올리면 국고 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에도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자 등록금 인상이라는 초강수를 두는 것이다.

대학들은 “정부 재정지원을 포기하는 대신 등록금을 올려 교육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목소리다. 대개 대학 등심위가 2월까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올리는 곳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일부 대학들은 올해 총선 이후 등록금 자율화 등 인상 관련 논의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지방 사립대 총장은 “내년에는 더 많은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4월 총선 이후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수도권 사립대 총장은 “정부가 등록금 인상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데, 올해 총선을 불과 두 달 남짓 앞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 요구가 거세지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인 ‘사립대학구조개선법’이 오는 4월까지 국회에서 통과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 효과성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법이 통과되면) 지역사회 고등교육생들이 더 건강해지도록 활용하는 방향으로 구조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손현경 기자 son89@



설날 앞두고… 물류센터 가득 채운 택배

설 명절 연휴를 8일 앞둔 1일 오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택배 분류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우정사업본부 설 택배 우편물이 약 1667만 개가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 14일까지 ‘설 명절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신속한 배달을 위해 비상근무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현호 기자 hyunho@

‘주호민자 학대’ 특수교사 유죄… 교원 “교육 현실 외면”

1심서 벌금 200만원 선고 유예
교원 “‘몰래 녹음’ 증거인정 우려”
法 “공개 안된 대화… 증거 능력”

웹툰 작가 주호민(사진)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교원단체들은 재판부가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특수교사의 현실과 학생의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교육적 목적을 외면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용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형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B군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주 씨 측이 자녀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보낸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이 규정하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면서도 “대화의 녹음행위에 위법성 조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불법 몰래 녹음을 인정해 학교현장을 사제간 공감과 신뢰의 공간이 아닌 불신과 감시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왜곡한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어 “불법 녹취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것은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선고 이후 주 씨는 “이 사건이 장래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에 어떤 대립으로 비치지 않을 것 같지 않다. 둘은 끝까지 협력해서 아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존재”라며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는 특수교사분들께 누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유정 기자 oiljung@



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앞서 실제 배출량 평가

오늘 전문가 포럼 열고
탄소중립 실천방안 논의

서울시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에 앞서 올해부터 건물의 실제 배출량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2일 전문가 포럼을 열고 건물의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는 건축물 유형에 따라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표준배출 기준을 설정해 매출 총량을 관리하는 제도다.

서울시 탄소중립 달성은 건물에 달렸다. 도심 온실가스의 약 70%가 건물에서 배출되고 있을 만큼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기후변화위기가 인류 생존을 위협하면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의무화 등 신축 건물 규제는 차츰 강화됐지만, 노후 건물 증가로 건물 분야 온실가스 배출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제로에너지빌딩은 건축물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 소요량을 충당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서울시는 2일 오전 10시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제5차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도입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개최하는 다섯 번째 전문가 토론회로, 건물 부문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건물 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기술 동향’과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감축 목표와 실행 수단’에 대한 발표 후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 학계·민간·정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며 발전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서영 기자 0jung2@

‘33억 과징금訴’ 쿠팡, 공정위 이겼다

LG생전 “가격 인상 강요” 신고
쿠팡 “제조사의 유통채널 견제”
法 “시정명령·과징금 모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납품가격이 너무 높아 매입과 판매를 하면 할수록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은 쿠팡이 이들 제조업체에 대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LG생활건강은 2019년 5월 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

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이 유통사라는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인상하도록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는 이유에서다.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쿠팡이 2017년 초부터 2020년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를 상대로 △타 경쟁 플랫폼 판매가 인상 △손실 보전용 광고 △판촉 행사비용 전가 등을 요구해 공정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2021년 8월 쿠팡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32억9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쿠팡이 “재벌 대기업의 제조사가 쿠팡 같은 신유통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를 차별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G생활건강이 쿠팡에 비싼 공급가를 책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는 취지다.

이날 선고 직후 쿠팡은 “빠르게 뒤바뀌는 유통시장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이번 법원 판단이 유통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꽃 기자 pgot@

문화해설 로봇 ‘큐아이’… 입체·원격 관람 제공

대한민국 1호 로봇 공무원 ‘큐아이<사진>’가 더욱 똑똑해진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현재 큐아이는 국립중앙박물관·국립현대미술관·제주항공우주박물관 등 전국 13곳에서 비대면 해설자로 활동 중이다. 연간 34만 건 이상의 문화해설 서비스와 다국어 인공지능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탈바꿈한 큐아이에겐 증강현실 기술이 탑재됐다.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들은 큐아이와 동행하며 입체적인 관람을 경험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산간과 도서 지역에서도 큐아이를 통해 원격으로 전시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이같은



은 큐아이 서비스 확대를 알리는 시연회를 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연다.

송석주 기자 ssp@

악인 처단한 살인자... 신이 내린 영웅일까

‘살인자ㅇ난감’ 드라마 9일 공개

“웹툰을 처음 봤을 때, 각색과 영화화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난감하고 고민이 많았다. 동시에 연출자로서 도전하고 싶은 작품이었다.”

1일 오전 서울 이태원 몬드리안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 제작발표회에서 이창희 감독은 꼬마비 작가의 동명 웹툰을 영상화한 소회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감독은 “원작의 훌륭한 만화적 표현을 어떻게 영상화할 것인가 고민했다”며 “웹툰을 보면서 욕심이 생겼고,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라하기로 결정했다. 즐겁게 작업했고, 연출자로서 큰 도전이었다”라고 말했다.

‘살인자ㅇ난감’은 우연히 살인을 시작하게 된 평범한 남자 이탕(최우식 분)과 그를 쫓는 형사장난감(손석구 분) 그리고 의문의 전직 형사 송촌(이희준 분)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총 8화로 구성된 시리즈는 언론에 4화까지 공개됐다. 9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동시 공개된다.

이날 제작발표회에 참석한 최우식은 참



넷플릭스 시리즈 ‘살인자ㅇ난감’의 주인공을 맡은 최우식(왼쪽 사진)과 손석구가 열연을 펼치고 있다.

여 계기에 대해 “우선 원작을 너무 재밌게 봤다. 제가 맡은 이탕은 배우로서 잘해보고 싶은, 욕심을 들게 한 캐릭터였다”며 “또 왤까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어서 뛰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물이긴 하지만 판타지도 있고 누아르도 있는 힙한 비범죄 같은 작품”이라고 덧붙였다.

손석구는 “개인적으로 웹툰을 잘 모른다. 알고 보니 이 웹툰이 엄청 레전드 작품이었다. 그래서 더 관심을 두고 보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드라마를 재밌게 봤는데, 이창희 감독님이 연출해서 만나고 싶었다.

우발적 살인 저지른 평범한 남자 그를 쫓는 형사와의 추격 스릴러 꼬마비 작가의 동명 웹툰 영상화 이창희 감독 “도전정신 일깨워줘 만화적 상상력, 사실적 표현 집중”

이번 작품을 연출한다고 하셔서 선택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희준은 “(출연 제안을 받고) 나중에 웹툰을 찾아봤는데 너무 재밌었다. 웹툰의 여백을 어떻게 실사화해서 시리즈로



사진제공 넷플릭스

만들 수 있을지 너무 궁금해서 참여하게 됐다. 행복하게 찍었다”고 말했다.

‘살인자ㅇ난감’은 연재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꼬마비 작가의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이탕은 우연히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공공로에게도 살인한 대상이 전부 악인들이다. 작가는 이 같은 설정을 통해 ‘죄와 벌’에 대한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지며 대한민국 콘텐츠어워드 만화신인상, 오늘의 우리 만화상, 독자만화대상 심사위원상을 받았다.

이 감독은 “영상화하면서 웹툰에서 허용되는 개연성의 간극, 만화적 상상력의 묘미가 있는 공백을 치밀하게 채워 사실적으

로 표현하도록 노력했다”며 “이 작품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은 것들의 조합이다. 아이라니의 충돌로 가득하다. 그런 와중에 오락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오락성 끝에 뭔가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작품이다. 진심을 담아서 찍었다”고 밝혔다.

외국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연출 포인트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감독은 “그렇게 되면 뭔가 이상한 작품 나올 것 같았다. 해외에 어필했다기 보다는 그냥 재밌게 만들면 자연적으로 외국분들도 똑같이 재밌어하지 않을까는 자세로 작품에 임했다”고 밝혔다. 송석주 기자 ssp@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성료... 강원, 스포츠 중심지로 우뚝

14일간 열전 마무리... 50만 발길 유인촌 “청소년들 잊지 못할 추억”

전 세계 78개국에서 18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강원2024)가 1일 폐막식을 끝으로 1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강원2024가 국민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

로 마무리됐다”며 “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을 것”이라고 대회를 마친 소회를 전했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창2018)의 경기 시설을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기도 했다.

청소년올림픽은 성인 올림픽에 비해 관

심도가 떨어지지만 이번 대회에는 총 50만 명의 관람객들이 모여들면서 큰 성공을 거뒀다. 피겨스케이팅이 시작된 날에는 1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기도 했다.

대한민국 선수단은 31일 기준 금 5개, 은 6개, 동 4개 등 총 15개의 메달 획득했다. 주재희(쇼트트랙) 선수를 시작으로 소재환(봅슬레이), 이채운(스노보드), 이윤승(스키), 김현겸(피겨스케이팅)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함으로써 대한민국

동계스포츠의 미래임을 증명했다.

특히 김현겸 선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피겨스케이팅 남자 선수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해 차세대 스타 선수의 탄생을 알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서는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등 전통적인 자종목인 빙상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볼모지나 다름없는 설상 종목에서도 메달을 획득해 대한민국 동계 스포츠의 밝은 미

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회는 다채로운 K-컬처 행사로 문화올림픽을 구현했다. 개막식에서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레이저 아트와 K팝, 춤 등을 결합한 화합의 무대로 연출했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예술단체도 문화예술공연을 펼쳤다.

‘강원2024’는 역사상 가장 디지털화된 동계청소년올림픽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개회식에서 세계 최초로 ‘디지털 성화대’를 선보였고, ‘메타버스 올림픽’도 최초로 구현했다. 송석주 기자 ssp@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의 첫 번째 시리즈
〈브라보 마이 라이프〉 콘텐츠 큐레이션 매거진

평생 현역시대 제2직업 가이드 ‘Lifetime Job’

매일 밤 11시, 당신이 잠 못 드는 시간, 미래를 위한 주사위를 던져보세요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 시리즈
매일 밤 11시, 미래에 대하여 많은 불안과 고민을 안은 40대 이상을 위해 인생의 지침서를 제공하려 합니다. 정부기관과 지자체, 교육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를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정보를 이 책 한 권에 집약했습니다.
<dice@11pm>는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치면 구석구석 준비된 QR코드는 독자들을 새로운 정보의 원천으로 안내합니다.

<dice@11pm>의 첫 번째 이야기, “Lifetime Job”
중장년이 원하는 실재 은퇴 시기는 73세. 그렇다면 70세까지 당신의 일거리는 준비되었나요?
청년의 노후준비 <dice@11pm>는 첫 번째 이야기로 일거리에 대한 필수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면서, 내 인생의 제2직업, 평생의 일거리를 마련해 보세요.

이투데이퍼낸싱 | BRAVO
〈브라보 마이 라이프〉 편집부 지음 | 186쪽 | 16,000원

전국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중

배우 정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정찬은 힘든 시간을 보냈다. 작품 운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원인이 꼭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시기가 묘하게 맞물렸다. 간간히 작품 활동을 했지만 주요 배역을 연기한 것은 2019년 KBS 2TV 일일드라마 ‘원삼집이 아내’가 마지막이다. 일이 없는 괴로움과 상실감은 너무나 컸다. 과거 ‘한국의 레오나르도 다카프리오’로 불리며 청춘스타로 인기를 끈 시절도 있었으니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었을터. 그럼에도 그는 깊은 수렁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열심히 다잡았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낸 끝에 마침내 선물처럼 작품이 찾아왔다. 지난달 첫 방송된 KBS 2TV 일일드라마 ‘피도 눈물도 없이’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활동 기지개를 편 그는 해가 뜨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다.

“운 좋게도 데뷔 이후 계속 바쁜 시간을 보냈어요. 한 해에 세 작품을 한 적도 있었죠. 그래서 지난 고비의 시간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장염을 예로 들어 설명해볼게요. 끔찍거리면서 배앓이를 하는 그 순간에도, 사실 우리는 아픔이라는 고비가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픔의 감정에 휩싸이고 우울해 집니다.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서 끊임없이 다른 탈출구를 찾고, 공부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찾은 마음이 건강해지는 답은 감정 기록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모든 것은 나한테서 시작되거든요.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도 결국 국내 판단일 뿐이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가지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정찬은 다양한 아웃도어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는데, 이것이 건강하게 천천히 늙어가는 ‘슬로 에이징’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취미 생활이나 운동을 하다 보면 감정의 기록이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그의 유별난 취미 생활이 알려진 것은 2018년 국내 최초 실험예능 ‘방탄조끼단’을 통해 ‘밀탁’ (밀리터리 덕후)이라는 사실을 공개하면서다. 알고 보니 그의 밀탁역사는 길었다. 1995년부터 BB건(BB탄 총)으로 즐기는 레저 스포츠인 에어소프트 게임을 즐겼고, 스킨스쿠버 다이빙은 강사로 활동한 적이 있을 정도로 수준급 실력을 자랑한다.

마음 건강에 집중하며 긴 공백기 견뎌
선물처럼 찾아온 작품 소중하고 감사
취미였던 바이크 라이딩 이제는 수준급
라이더 일상 유튜브로 공유 재미 쏠쏠

아웃도어 취미 생활도 ‘질주’

“드라마 데뷔작인 1995년 MBC ‘TV 시티’에서 스텐트맨 영대 역을 맡았어요. 스킨스쿠버 다이빙을 안 배웠다가는 사고가 날 것 같아서 촬영을 위해 배우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매력에 빠져들었고, 2002년에는 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트레이너 자격증까지 취득해서 계속 활동했어요. 저에게 수업을 받은 연예인 제자도 몇 명 있습니다. 저는 바다라는 존재를 무척 좋아합니다. 이번 휴지기 때도 다이빙 여행을 다녔는데요. 덕분에 그 힘들었던 시간을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정찬의 대표적인 취미는 바이크 라이딩이라고 할 수 있다. 과장해서 표현하면, 오토바이 업계에서 그를 모르면 간접인 수준이다. 정찬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OB찬.일기’를 통해 라이더로서 일상을 보여주고 있다. 오토바이 리뷰를 하거나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 등을 재밌게 전해준다. 여기에 더해 이번 달에는 유튜브 채널 ‘임블든’에서 그가 MC를 맡은 라이더 관련 토크쇼 콘텐츠 ‘정찬의 솔레바퀴’가 공개된다.

“바이크 라이딩 취미는 30대 중반부터 갖게 됐어



불타는 ‘청춘’ 언제나 ‘정찬’

언제나 청춘, 오늘도 젊음을 향해 질주하는 정찬(53)에게
씩 잘 어울리는 표현이다. ‘연에게 대표 라이더’로 통하는
그는 바이크 라이딩뿐만 아니라 스킨스쿠버 다이빙, 사격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긴다. 이것이 젊음의 비결이라
고 생각했는데, 그의 마음속에서 꽃핀 철학이 몸과 마음
모두 단단한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요. 이제는 대중들도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존중해주고 좋게 봐주신다고 느낍니다. 물론 위험한 취미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바이크를 탈 때는 안전 장비를 철저히 착용해야 합니다. 크게 한 번 사고를 당한 적이 있지만, 안전 장비를 하고 있었던 덕에 가벼운 찰과상에 그쳤죠. 아이들도 아빠와 함께 오토바이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현재는 스쿠터 한 대를 갖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거나, 병원에 갈 때 아이들을 스쿠터 뒤에 태우죠. 아이들 스스로 스쿠터 탈 때는 헬멧을 꼭 써야 하고, 반소매 옷은 안 된다는 걸 알고 딱 준비합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줄 때도 안전교육을 철저히 했어요. 아이들이 안전만큼은 잘 알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미 생활과 그의 작품 속 캐릭터는

정반대 지점에 있다. 도회적이고 부드러운 이미지 때문인지 실장·사장 등 고위 엘리트 캐릭터를 맡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방영 중인 ‘피도 눈물도 없이’에서도 YJ그룹 회장 윤이철 역을 맡고 있다. 액션 연기를 잘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배우는 언젠가 한풀이(?)를 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는다.

“작품 속에서 제복을 입어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웃음) 당연히 액션물도 좋고, 장르물에도 출연하고 싶어요. 업계에서는 제가 소비된 이미지가 있으니, 계속 그 이미지로 저를 불러주신다고 생각해요. 이번 ‘피도 눈물도 없이’도 회장님 역할이니까 그동안과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 로맨티스트이고 허당스러운 캐릭터라는 거예요. 작가님께서 ‘젊었을 때 반짝이던 미남 배우가 와서 철없이 망가졌으면 좋겠

다’고 해서 제가 캐스팅됐다고 하더라고요. 오랜만의 작품 출연에 신나서 연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악역 전문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 드라마 ‘퀸’, ‘오만과 편견’ 등에서 악역 연기를 한 적이 있는데, 카타르시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중년으로서 새로운 장르와 캐릭터에 도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방법은 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리암 니슨도 50대에 액션 영화에 도전했고, 60세가 넘어서 전성기를 맞았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포레보다 늦은 육아 오히려 젊게 사는 비결
씩씩한 아이들 덕분에 외로움 모르고 지내
악역 매력 넘쳐… 계속 연기 폭 넓히고파
나를 사랑하며 건강하게 나이들고 싶어

늦깎이 아빠의 버킷리스트

정찬은 또 하나의 슬로 에이징 방법으로 ‘늦은 육아’를 꼽았다. 42세에 아빠가 됐다는 그는 “첫딸은 열 살이고 둘째인 아들은 아홉 살이다. 친구들의 자녀는 벌써 성인이다”라면서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인지 젊게 사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자평했다. 2015년 이혼한 정찬은 올해 8년 차 ‘싱글대디’다. 방송과 SNS에서 보이는 아버지로서 그는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무서운 선생님 같은 모습이다.

“싱글대디로서 부족한 부분은 많겠지만, 아이들을 키우면서 크게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준 덕분이죠. 친구들이 아빠가 되면서 많이 변했다고 그래요. 저 스스로도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평소엔 저는 아이들과 장난도 잘 치지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분명하게 짚어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부모의 역할이 정말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건 몰라도 아이들이 감정이란 괴물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으로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싱글대디에 대해 사람들은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 정찬은 “돌아켜보면 아이들이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한 적도 있었지만, 내색을 많이 안 한 것 같다. 주말마다 엄마를 자주 만나고 있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혼 생각이 없다면서 “지금처럼 취미를 즐기면서 아이들과 함께 사는 일상이 행복하다. 연애 생각도 딱히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 육아가 또 다르고 힘들 거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그건 그때 일이고, 어떻게든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망설이지 않고 도전을 즐기는 정찬. 최근에는 드론 강사 자격증, 무인 헬리콥터 교관 자격증을 취득했다. 그럼에도 아직 이루지 못한 버킷리스트가 남았다. 첫 번째는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상을 받는 것, 두 번째는 손자·손녀를 품에 안아보는 것이다. 자신의 인생에서 우선적으로 소화해야 할 역할을 ‘배우’와 ‘아빠’라고 꼽은 사람답다.

정찬은 인생 모토를 ‘모든 인간은 죽는다. 죽음은 제2의 탄생이다’라고 표현했다. 잘 늙어가는 방법 중 하나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것도 거론된다. 그래야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법이다. 이를 몸소 입증한 정찬은 마지막으로 ‘나를 사랑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40~60대는 자신에 대해 심오하게 사색하고 고찰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사람들과 다툰다 ‘내가 왜 그럴까’라고 원인을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를 사랑해야 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천천히 건강하게 나이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나를 사랑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죠. 죽음이라는 제2의 탄생이 다가올 때까지 한 발짝씩 계속 걸어갈 겁니다.”

글/ 손효정 기자 shjlife@
사진/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람을 향한 더 나은 세상

모두가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작합니다



살고 싶은 집과 도시, 국민의 행복을 위한 8대 비전



고품질 주택
80만호 공급



주거복지
200만호 제공



스마트시티
250km² 조성



국가균형발전
지원 강화



온실가스
288만톤 감축



대국민 서비스
100% 디지털 전환



부채비율
200% 이하 달성



청렴고객만족·안전
최고등급 달성

“직원 모두가 실손청구 중계기관 TF처럼 준비 중”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청구 간소화 대행기관 선정 대비
300여 직원 시스템 구축에 혼신
저출산시대 보험시장 환경 변화
데이터 혁신 플랫폼 도약할 것

허창언<사진> 보험개발원장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 선정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허 원장은 “보험개발원이 실손보험 청구 중계기관으로 선정된다면 직원 모두가 일종의 태스크포스(TF)처럼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일 허 원장은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혹시라도 중계기관 임무가 떨어질지 몰라 보험개발원 300여명 직원 전체가 준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당국과 의료업계, 보험업계가 참여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TF는 쟁점 사항인 중계기관 선정을 놓고 이날 2차 회의

를 진행했다. 의료업계는 핀테크 업체를 중계기관으로 선정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허 원장은 “민감한 의료 데이터가 중간에 끊기더라도 할까 걱정된다”며 “미션이 주어지면 개발원의 면목을 만천하에 드러내겠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그는 “최근 한국에 가장 큰 안보 위협이 북한보다 저출산”이라며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의 도약 계획도 발표했다. 허 원장은 “보험업계도 저출산·고령화 시대 진입으로 가망고객(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이 가파르게 줄어들어 보험산업 성장을 이끈 전통적 사업모델은 한계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보험산업이 적극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올해 개발원은 ‘뉴 비즈니스(NEW Business)’ 설계, ‘뉴 플랫폼(NEW Platform)’ 구축, 신 시장인 ‘뉴 웨어(NEW Where)’ 탐색에 중점을 두고 보험산업의 위기 극복과 미래성장동력 창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



다. 특히,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기획·결합·상품화’ 기능을 통합 추진하는 ‘데이터신성장실을 신설’하고, AI 및 빅데이터 전문인력을 배치했다.

허 원장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기본에도 충실해야 한다”라며 개발원이 ‘보험산업 데이터 혁신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설명했다.

진옥동 “틀 깨는 디지털 혁신, 고객 편의로 이어져야” (신한금융 회장)

AI·데이터 실무자와 캔미팅

“틀을 깨는 디지털 혁신이 고객 편의로 이어져야 한다.”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고객과 직원이 제갈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당부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1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진 회장은 전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인공지능(AI), 데이터(Data)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그룹의 디지털 전환을 논의하기 위한 ‘AD(AI·Data) 캔미팅’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 회장은 “AI와 데이터는 그룹의 미래를 이끌 핵심 경쟁력으로 여기에 모인 직원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분 개개인이 기술이라는 것에서 벗어나 비즈니스 디자이너로서 혁신을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진옥동 회장이 그룹사 최고경영자(CEO) 및 은행, 카드의 AI, 데이터 담당 실무자들과 함께 디지털 전환을 위한 현안 및 해외 금융권 트렌드를 공유하고 전략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옥동(가운데)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행한 ‘AD(AI·데이터) 캔미팅’에서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 신한금융

토론에서는 그룹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AI와 데이터 관련 설문을 바탕으로 실무 과정에서 이슈와 개선점에 대해 열린 논의가 이어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디지털 기반 사업

다. 개발원은 보험산업 비즈니스 확장을 위한 빅데이터 솔루션을 제시했다.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험정보와 타 기관의 금융·비금융 데이터 결합연구를 통해 보험산업의 비즈니스 확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형 자동차보험 상품개발을 위해 차량별, 운전자별 특성을 반영한 요율체계 개편도 지원하며, 건보공단 데이터를 활용해 간병보험의 위험률 개발을 도울 방침이다.

통합 인프라 구축으로 효율성도 높인다. 운전습관 데이터 보유업체와 보험업권 간의 데이터 교류가능성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해 운전습관 데이터를 보험권 내에서 자체 관리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새로운 시장 수요를 높이기 위한 상품 개발도 지원할 방침이다. 소비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MZ세대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대 젊은 고객층을 타깃으로 한 상품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지연 기자 sjy@·사진제공 보험개발원

선친 이은 노블레스 오블리주

안성호 재단법인 에이스경암 이사장
설맞아 1억4000만원상당 백미 기부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은 안성호<사진> 이사장이 경기도 성남시 청에서 열린 쌀 기탁식에서 1억40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기증된 백미는 총 5900포(10kg)로 성남시 관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5708가구와 소년소녀가장 192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백미 기증은 설을 앞두고 ESG 경영의 하나로 진행됐다. 에이스경암이 지난 26년 동안 지역사회에 전달한 쌀은 누적 14만8360포(1483t)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35억4000만 원에 달한다.



에이스경암은 안성호 이사장의 선친이자 에이스집대 창업자인 고(故) 안유수 전 이사장이 사회공헌사업을 위해 설립했다. 안 전 이사장은 1999년부터 매해 쌀을 기증하며 노블레스오블리주를 실천해 왔다. 안 이사장은 선친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일회성 지원보다는 꾸준한 기부를 이어나가는 것을 방침으로 삼았다.

이에 지난해 9월 추석 명절 당시 첫 백미 기부에 나섰다. 또 이달 초 어르신 200여 명에게 무료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이천 에이스 경로회관을 신축 재개관했고, 연탄 기부 및 나르기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안 이사장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후원활동도 감소해 아쉬움이 크다”며 “에이스경암은 지난 26년간 그래왔듯이 사회적 약자가 끼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부음

‘한국적 풍수이론’ 최창조 前서울대 교수

한국의 풍수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연구한 최창조 전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31일 별세했다. 향년 74세.



1950년생인 고인은 서울대 지리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토개발원 연구원을 거쳐 전북대, 서울대 지리학과 교수를 지냈으나, 서울대로 간 지 4년 만에 교수직을 내던지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후 우리 땅에 깃든 기운에 주목하며 풍수 이론을 연구하고 대중 강연에 나서면서 우리 식의 풍수학을 구축한 연구자로 널리 인정 받았다. 고인이 남긴 ‘한국의 자생 풍수’, ‘한국의 풍수사상’, ‘사람의 지리학’, ‘땅의 논리 인간의 논리’ 등의 저서는 한국의 풍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꼽힌다.

빈소는 서울 영등포구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 VIP 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3일 예정이다.

▲이균범(전 전남 지사·전 감사원 감사위원) 씨 별세, 이진숙 씨 남편상, 이미경(한성라이프엔 이사)·현경·보경(한국공학대 교수)·은경·창훈(금융감독원 선임검사역) 씨 부친상, 조상현(서울대 병원 교수)·이창제(전 법무부 차관)·정무경(고려아원 사장·전 조발청장)·이현(고려대 공대 교수) 씨 장인상, 김민서(서울 성동구 사랑이아소아청소년과 원장) 씨 시부상=31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3일 오전 7시, 02-2072-2020



한국콜마 진로·직업 체험의 날 행사에 참석한 연남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콜마

한국콜마, 초등 6학년생 ‘진로·직업 체험의 날’ 행사

서울 연남초등학교 6학년(예비졸업생) 154명이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을 방문, 화장품 연구원과 크리에이터 등 한국콜마의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했다.

한국콜마홀딩스(한국콜마)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콜마 종합기술원에서 연남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 ‘진로·직업 체험의 날’ 행사를 진행했다

고 1일 밝혔다. 2019년 8월 종합기술원 개원 이후 인근 초등학교가 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콜마 임직원들은 학생들이 화장품 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직접 강연자로 나섰다. 이들은 어떤 직업군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자

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연남초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임영아 연남초 교감은 “뷰티에 관심이 높은 학생들이 많아 열린 분위기 속에서 생생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미래를 이끌어 학생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화장품 산업을 간접 체험하고 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유연 기자 kyy0907@

KT스카이라이프 대표에 최영범 前 홍보수석 내정

KT스카이라이프 대표이사에 최영범<사진>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내정됐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를 통과한 최 전 수석은 업무 인수인계를 거쳐 다음 달 정식 취임할 것으로 전해졌다.

최 내정자는 서울 출생으로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하고 SBS에서 보도본부장과 경영지원본부장을, 현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김나리 기자 nari34@

인사

◆행정안전부 △국립과학사연구원장 이봉우
◆농림축산식품부 △국장급 전보 △대변인 전한영 △정책기획관 김경주 △농촌정책국장 김종구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박정훈 △농식품혁신정책관 이상만 △농업정책관 윤원승 △방역정책국장 최정록 △식량정책관 최명철 △유통소비정책관 박순연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 안용덕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송남근
◆통계청 △과장급 전보 △조사시스템관리과장 채관병 △통계정보플랫폼과장 이선희 △동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최경순
◆한국기계연구원 △소장급 △자율제조연구부장 오정석 △탄소중립기계연구부장 최병일 △AI로봇연구부장 박찬훈 △본부장급 △나노융합연구본부장 장원석 △친환경에너지연구본부장 송동근 △가상공학플랫폼연구본부장 김상렬 △대규모합기술연구센터장 권오원 △행정본부장 유병민 △성과확산본부장 이용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본부장 김윤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직 임명 △해양연구본부 해양환경·공간연구실장 조성진 △“독도·해양규범연구실장 박수진 △수산연구본부 수산식품·수산염연구실장 안지은 △해운연구본부 해운정책연구실장 최건우 △“ 해운경영·금융연구실장 류희영 △“ 해운시장연구실장 황수진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분석연구실장 최석우 △“ 공공투자분석연구실장 이종필 △물류·해산산업연구본부 물류정책·기술연구실장 최나영환 △“ 해상산업연구실장 박해리 △“ 국제물류투자분석·지원센터장 신수용
◆한국고용정보원 △본부장 임명 △기획전략본부 김균 △국가고용정보망운영본부 박건욱 △고용정책연구본부 고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미래에너지연구실장 박찬국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략기술기획본부장 손석호 △제도성과혁신본부장 류영수 △재정투자분석본부장 강현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부장급 △기금관리부장 박병우 △센터·원장급 △방사선안전센터장 오상탁 △방사선안전교육원장 조영호 △팀·실장급 △감사실

장 박민규 △기금운용실장 박진영 △인재경영실장 주선동 △기획예산실장 홍광 △전략기획팀장 안창운 △교육운영팀장 임기중 △국제협력팀장 박효성
◆한국국제과학센터 △기획이사 박미선
◆한국여성벤처협회 △임원 선임 △상근부회장 이시희
◆대신파이낸셜그룹 △대신증권 △법인영업본부장 정철원 △대신경제연구소 △대표이사 백재욱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부사장 △경영지원본부 총괄대표 김용기 △이사대우 △멀티상품솔루션부장 이하경
◆하이투자증권 △신규 보임 △투자심사부장 박세웅 △플랫폼기획부장 이정호 △침산지점장 허세진 △이동 △분당지점장 최영우
◆우리카드 △신규 임원 △디지털/IT그룹 겸 D&D사업본부 전무 박위익 △디지털/IT그룹(글로벌페이먼트팀) 전무 유태현
◆한샘 △이사 승진 △홈퍼니싱사업본부 이수열 △R&D본부 김해원 △이사대우 승진 △특판사업본부 특판지원부 류성호 △기업문화실 정광현 △윤리경영실 한승훈 △계열사 이사 승진 △한샘네스스 특판사업실 이승준 △한샘개발 CSA사업본부 이영일

문학의 쫓

영화 ‘서울의 봄’이 13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한다. 현재 역대 흥행 순위 8위이니 3위 안에 들 수도 있겠다. 바로 얼마 전에 개봉한 ‘길위에 김대중’은 다큐멘터리 영화임에도 많은 관객이 영화관을 찾게 하고 있다.



이승하
시인·중앙대 교수

그리고 보니 한국 현대사를 다룬 영화 중 ‘국제시장’ ‘택시운전사’ ‘변호인’ ‘1987’ ‘화려한 휴가’ 등 흥행 성공작이 꽤 된다.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파른 역사의 언덕을 넘어왔는지 이런 영화 몇 편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영화가 두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정치권력을 자신만이 갖고 그것을 또 영구히 가지려고 한 박정희와 전두환 두 전 대통령의 욕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힘들게 했는지 영화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왜 민주주의가 필요한지 또한 바로 알 수 있다.

주의다. 즉, 국민에게 주권이 있는 것이다. 의회로 간 정치인들은 국민의 위임을 받은 것이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국민이 5년 동안 우리를 잘 좀 다 스려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동안 국사가 수능시험에서 선택과목이 되는 바람에 국사를 전혀 공부하지 않은 세대가 생겨났는데 그들도 영화를 두세 편만 보면 우리나라 현대사가 얼마나 폭력과 광기로 얼룩져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역사 공부가 자라나는 세대에게 교훈을 주어야 할 텐데, 과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4·19혁명 직후 부모형제 살인사건이 있었음을 학생들이 알고 있을까? 이강석은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장 이기붕과

영화 그 너머의 메시지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이 된 이후 권력을 공고히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경제개발 논리였다. ‘근대화’와 ‘공업입국’과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란 캐치프레이즈는 박정희 대통령이 3선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유신시대에 접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저달라·저유가·저금리라는 3저의 호황은 전두환 대통령을 도와주었다. 스포츠, 섹스, 스크린의 머릿글자를 모은 3S 정책은 전두환에 이어 노태우 장군도 대통령이 되게 하였다. 1980년대는 프로야구, 주간지, 비디오가 상업화를 넘어 산업화가 된 시대였다.

그 과정에서 죽은 대학생 김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실로 많은 이들이 죽었다.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행방불명된 이들, 군대 의사, 분신자살한 이들의 이름은 가족 외에는 모를 것이다.

정부 수립 이후 참으로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또 넘기며 얻어낸 것이 의회 민주

박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되었다.

육군 소위 이강석은 친부가 부정선거를 주도하고 양부가 혁명으로 하야하자 친부와 친어머니 박마리아, 동생 이강욱 등 온 가족을 총으로 쏘 죽인 뒤 자신도 자살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초대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욕심이 빚어낸 일이다. 이 일을 교훈 삼아 통치자는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결국 박정희의 아들 박지만과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이 마약에 손을 대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총선이 실시된다. 진정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정권심판론과 정권안정론이 대립하고 있지만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일할 사람을 가려내는 우리의 눈이 문제다. 이 눈이 흐려지면 영화들이 들려준 역사의 교훈은 쓸모없게 된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해브룩 엘리스 명언

“아름다움에 결점이 없다는 것 그 자체가 결점이다.”

영국의 의사, 우생학자다. 작가인 그는 인간의 섹슈얼리티를 연구한 사회 개혁가다. 동성애에 관한 최초의 의학 교과서를 영어로 공동 집필한 그는 성전환 심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적 관행과 성향에 관한 연구도 발표했다. 자기애와 자기애의 개념을 발전시켰는데, 이 진보적 지식은 훗날 정신분석학에 의해 채택됐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59~1939.

☆ 고사성어 / 취모구자(吹毛求疵)

입으로 불어가며 털을 헤쳐서 그 속에 있는 상처를 찾아내는 것처럼, 억지로 남의 잘 드러나지 않는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출전 한비자(韓非子) 대체편(大體篇). “털을 불어 헤쳐가면서까지 그 속의 잘못을 찾아내려 하지 아니하였고, 때를 씻어가면서까지 그 속의 알기 어려운 것을 살

피려하지 아니하였다[不吹毛而求小疵不洗垢而察難知]”라는 대체(大體)를 갖춘 사람을 설명한 구절에서 유래했다. 취매(吹毛), 취모검부(吹毛檢膚), 취모명자(吹毛覓疵), 취모색자(吹毛索疵), 취색(吹索), 취세(吹洗)는 모두 같은 말이다.

☆ 시사상식 / 재텔근무

재택근무와 호텔이 합쳐진 말이다. 집 대신 호텔의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하며 업무를 보는 근무 형태다. 코로나 19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호텔로 출근해 일하는 재텔근무가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재텔근무는 업무 집중도를 높이고 사무실과 집이 아닌 새로운 공간에서 일함으로써 리프레시를 즐길 수 있어 일과 개인 생활의 경계가 허물어져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재택근무의 단점을 보완한다. 또한, 근무시간이 끝나면 호캉스도 누릴 수 있어 일과 휴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멧있는 숲 연구소장

이슈&인물

국내 최대 사회복지학회 이끄는 석재은 한림대 교수

“저출산 대응하다 고령화 대비 놓쳐”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2% 이상으로 인상하는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며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를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를 추가 인상하든, 기초·퇴직연금과의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42대 사회복지학회 회장에 취임한 석 교수는 연구활동 외에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민간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상황에 맞는 한국형 사회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저출산·저출생 용어가 혼용되고 있다. 정책적으로 ‘저출생’이란 말을 쓰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다 ‘저출산’이 맞다고 한다. 저출산과 저출생은 개념과 용도가 다르다. 저출산이 성차별적 용어라고 쓰지 말자는데,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명확하게 다른 단어를 혼용하면 혼란만 빚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시하는 정책들도 ‘아이를 낳는 데’ 방해요인을 제거하고, 출산·육아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다. 기관 역할을

연금보험료 12%까지는 이전 적어
복지지출 합리화해 노인빈곤 개선
플랫폼 노동자 ‘복지사각’ 없애야
복지대전환 맞아...한국형복지 연구

고려해도 저출산이 맞다. 저출생이라고 하면 지방 가입여성 감소로 출생아가 줄어드는 문제인데, 이걸 해결하는 건 지역 균형발전이다. 위원회가 따로 존재한다. 인구정책이란 큰 틀에선 저출산·고령화 대응과 지역 균형발전이 모두 포함되지만, 기관마다 고유한 기능이 있다.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내 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구조의 문제로 봐야 할지, 단순한 정책실패로 봐야 할지 고민이다.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를 내려면 다른 기관·기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지역 균형발전만 해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단독으로 뭘 만들어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데, 중앙행정기관들이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다. 대통령이 직접 움직일 때만 딱 협조하고, 평소엔 협조하지 않거나 단독으로 정책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을 틀어쥐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재정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편성권은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인

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한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기본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구이고 모든 부처의 상급 기관인데 어디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장관들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인데, 회의에 출석하는 장관이 누가 있다.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기존의 정책들을 평가해 선별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과 제들을 발

굴하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 고령화 문제에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것 같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달리 우리가 잘 대응하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 복지지출을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고, 현재 40~50대의 노후 준비를 도와 미래 노인을 가난하지 않게 하면 된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고령화 문제는 늘 저출산의 후순위였다. 아직은 사회적 부양부담이 낮아서 문제의 심각성이 잘 체감되지 않는다. 지금부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연금제도도 개혁해야 하고, 의료체계도 개선이 필요하다.”

“학회 이야기를 듣고 싶다. 올해 핵심 의제는 무엇인가. “사회복지학회는 사회복지학 전반을 아우르는 모학회다. 상반기와 하반기 정책토론회, 추계 학술대회가 예정돼 있는

데, 올해에는 ‘복지 대전환’을 논의해 보려고 한다.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화가 가파르다. 복지도 이런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은 뭘 어떻게 바꿔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가령 노동시장에선 사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을 기존 사회보장체계에 넣어야 하는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체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논의하고 답을 찾아야 한다. 소득보장도, 돌봄체계도 마찬가지다.”

“결국 ‘한국형 복지체계’를 정립해 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될까.

“한국의 복지제도는 대부분 해외 사례를 참고해 만든 것이다. 압축성장 과정에서 복지정책도 압축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나라가 없다. 한국은 유례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어느 나라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각하고, 인구 대비 자영업자가 어느 나라보다 많다. 이젠 한국 상황에 맞는 한국형 사회복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 결과로 저출산·고령화를 비롯한 여러 사회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의 체계는 세계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선진국 안착, ‘무역 2조弗’에 달렸다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사는 나라이다. 우리가 지금과 같은 선진국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많은 석유, 가스 등 에너지 자원이 필요한데, 국내에서는 석유 한 방울 나지 않아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한다. 따라서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국내에서 물품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해야만 한다.

전쟁의 잣데미 속에서 빠르게 벗어나 대한민국을 경제강국으로 이끈 경제 발전에 견인자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수출이고 무역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세계에서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열고 2020년에는 무역 2조 달러 시대를 열겠다는 희망에 부풀었으나 12년째 1조 달러대에서 정체를 보이고 있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4만~5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역규모가 2조 달러를 넘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 2조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역 규모가 2023년 대비 54%, 2022년 대비 43%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에너지

를 절감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량을 늘려 국가적인 에너지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기준으로 석유, 천연가스, 유엔탄, 경질유, 프로판 등을 수입하는데 1635억 달러를 지불해 우리나라 총수입의 25.4%를 에너지 수입에 썼다. 물론, 이 중 많은 부분은 화학제품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되어 재수출되기도 하고, 고급 휴발유 등을 생산해서 수출했지만 대부분은 국내에서 소모됐다. 원자력 의존도를 높여 에너지 수입의 20%를 절감할 수 있다면 30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 수입을 줄이고 무역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지속가능한 무역을 위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수 원자재 확보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 각국이 자원을 무기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로 글로벌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서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가적 어려움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

논현로

정운세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



가 높은 자원이나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국을 다변화하고 장기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공기업들을 통해서 해외의 유전, 원광 등에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관련하여 수출기업에 대한 선제적 ESG 경영지원이 필요하다.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다양한 협약과 조치들이 마련되고 있다. 넷제로를 위한 CBAM(탄소국경조정제) 도입, EU 공급망실사법, 에코디자인 규정 등은 제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을 추적하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늦어지면 해외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입법 동향을 파악하고 중소기업들이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다음은 정부가 생산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 신생아 출산율이 0.8 밑으로 떨어지고 젊은 세대가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기를 포기하고 있어서 이 또한 국가적 위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소형주택을 대거 공급하는 정책을 써야 한다.

마지막으로 친시장, 친기업 정책을 통해 산업을 육성하고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규제입법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고 한다. 동남아 국가들에서도 가능한 우버나, 그랩, 볼트 등 다양한 운송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에 막혀 불가능하다. 규제의 장막을 없애고 창의적인 사업이 가능하도록 획기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원전 늘려 국가에너지 비용 절감

수출기업의 ESG 경영지원 필요해

친시장·기업 정책으로 산업육성

‘필수의료 살리기’ 현장과 소통을

병상 부족이나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고,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불공정한 보상이 가져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안과·성형외과 등 소위 돈 되는 과에 젊은 의사들이 몰리는 사태를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하지만 종합 대책을 뜯어보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찾기 어렵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늘리겠다고 한 지 4개월이 넘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확대 규모나 발표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고자 하는 의지만 보일 뿐이다.

현직 의사들은 정부의 이번 정책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전공의를 늘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확신한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논의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공익네트

노트북 너머

노상우

헬스케어부 기자



워크는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탈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의대생을 양성하는 대치동 학원가의 배만 불릴 것이란 차가운 전망마저 나온다. 한국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5년간 쏟아부은 돈이 280조 원이다. 대통령 직속위원회를 세우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문제는 나아지지 않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가 빠르다.

지역·필수의료 문제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고 몇 가지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며 의사와 환자, 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려는 정부의 정책이 저출산 정책과는 다른 성과를 얻길 바란다.

nswreal@

사설

의대 증원, 언제까지 의사단체 눈치만 볼 건가

정부가 어제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필수의료로 살리기 위한 수가 인상에만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투입하는 특단의 대책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8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무너져 가는 의료체계를 바로 세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라고 했다.

4대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의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 보상 강화로 압축된다. 의료사고 면책은 연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제도화한다. 사망사고를 특례에서 제외할지 등은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공소 제기 면제는 환자 동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만 가능하도록 했다. 의료사고 시 환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원칙을 적용한다.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방안도 검토한다고 한다.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전략도 있다. 필수의료 취약 지역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와 함께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한다. 대학과 지자체, 의대생 3자를 계약 관계로 묶는다. 의사가 충분한 수입을 보장받고 필수의료기관과 장기근속 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비급여 진료체계도 손본다. 환자 의료비 부담 증가와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출 원인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알맹이는 여전히 보이지 않았다. 의대 증원 규모다. 필수의료 재건의 핵심이 짙은 안개로 덮여 있는 꼴이다. 의대 정원은 2006년부

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5년 후면 인력난이 체감된다는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2035년까지 1만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추산한 1만 명에 더해 취약지역에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 어제 ‘2024년 경제 공동학술대회’에서도 같은 각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의사가 되기까지 통상 10년 세월이 필요하다. 더 늦기 전에 의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2025년 입시부터 증원 폭은 기존 예상을 웃도는 2000명 이상이 될 공산이 크다. 이해집단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대 증원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론히 대응하겠다는 얘기일 것이다.

정부 인식이 제대로 돼 있어도 정작 행동에선 의사단체 눈치나 살피는 복지안동(伏地匪動·땅에 납작 엎드려 눈만 굴린다)에 그치면 개혁 완수는 불가능하고 국민은 등을 돌리게 된다. 자성이 필요하다. 위험 수위를 이미 넘어섰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의 추가 증원을 희망한다는 의대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 발표도 두 번 미루지 않았다.

의대 증원은 국민적 여론이다.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의사 단체도 직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협조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대다수 국민이 원하는 의료 개혁을 일부 반대나 저항 때문에 후퇴한다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말에 그쳐선 안 된다. 실행이 중요하다. 시간이 없다.

글로벌 시민 감시카메라, 방법과 사생활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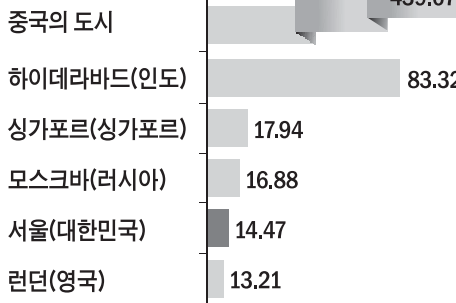
지난해 여름 밤에 가게 앞에 놔뒀던 파라솔을 도둑맞았다. 받침대는 무거웠던지 그냥 놔두고 파라솔만 빼갔다. 도둑이야 몇십 유로 받고 팔면 그만이었지만 당한 입장에서 속이 부글부글 끓는다.

그제야 식료품 가게 아저씨의 당부가 생각났다. “화장실을 갈 때도 꼭 가게 문을 잠그고 가라. 너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다. 너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그들은 너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칠 거야.” 결국 파라솔에 체인을 묶지 않았던 차에 이 사달이 나고 말았다. 한국 같으면 주변에 방범용 감시 카메라에 담긴 영상을 찾아내 도둑을 잡을 텐데 아뵘싸 아무리 둘러봐도 감시 카메라가 없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포르투갈에서 방범용 감시 카메라 설치가 매우 엄격하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지난해 초 리스본 주재 중국대사관은 주민들의 항의로 대사관 주변 감시카메라 3대를 폐쇄하거나 재배치한 일이 있었다. 주민들은 영사부 주변의 대형 감시카메라들이 아파트 건물과 공공도로를 촬영할 수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포르투갈 외교부와 국가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대사관에 포르투갈의 감시카메라 운영 규정을 준수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중국대사관은 카메라 한 대는 철거하고 나머지 두 대는 더 이상 대사관 밖을 향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인구 1000명당 감시카메라 수

(단위 : 대) ※출처 : Comparitech



최근 리스본에 범죄 예방용 감시카메라를 올해 초 3배 가까이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보고 오보인가 싶어 다시 한 번 확인해봤다. 현재 리스본에는 33대의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올해 초 97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내년까지 도시 전체에 242대의 비디오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란단다.

리스본 인구가 약 55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감시카메라 242대가 설치돼도 인구 1000명당 감시카메라는 0.44대에 불과하다. 그물망처럼 연결된 서울의 방범용 감시카메라에 익숙한 나로서는 겨우 240여 대로 큰 도시의 범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 싶지만 이곳 경찰은 “비디오 감시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우범지대에서 이뤄지는 차량 내부 절도, 소매치기, 폭력, 강도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이버보안 테크기업 컴패리티크(Comparitech)의 집계에 따르면 서울은 1평방마일(2.59km²)당 618.45대의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는 중국 도시를 제외하면 인도 델리에 이어 세계 2위다. 인구 1000명당 감시카메라 수도 14.47대로 세계에서 8번째로 많다.

서울과 리스본의 상반된 감시환경이 공공의 이익과 사생활 보호라는 두 가치 중 어디에 더 중안점을 둘 것인지 화두를 던진다. 코임브라(포르투갈)=장영환 통신원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쇄인 김덕현

주필 이승현

편집국장 박성호

2010년 10월 4일 창간<일간>

홈페이지 www.etoday.co.kr

주소 우편번호 06044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광고문의 (02)799-2668

구독·배달 (02)799-2684

구독료 월 20,000원 1부 1,000원 2006년 4월 27일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AMSUNG

Galaxy S24 Series

Galaxy AI ✨ is here



samsung.com

*일부 시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삼성 계정 로그인에 필요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삼성닷컴에서 확인하세요